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간호학박사 학위논문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박 세 은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지도교수 방 경 숙

이 논문을 간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박 세 은

박세은의 간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채 선 미 (인)
부위원장 김 해 선 (인)
위 원 조 성 현 (인)
위 원 강 현 주 (인)
위 원 방 경 숙 (인)

Effects of Infant Fathers' On·off-line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Father-infant Interaction

by
Park, Sae-E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2020

Doctoral Thesis Committee:

Chae, Sun-Mi	Chairperson
Kim, Hae-Won	Vice Chairperson
Cho, Sung-Hyun	
Kang, Hyun-Ju	
Bang, Kyung-Sook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구두 및 서면 피드백, 온라인 강의, 가정방문, 구두 및 서면 피드백 단계에 따라 매주 1회씩 5주간 총 5회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Kathryn Barnard (1978)의 '아동건강가정 상호작용 이론' 에서 돌봄제공자, 환경, 아동이 교차하는 상호작용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제공자와 아동 영역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결과지표로써 영아발달의 지식 증가와 부아상호작용, 부아애착의 증진을 확인하고자 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자치구 세 곳에 거주하면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보편방문에 참여했던 가정의 영아기 자녀(생후 2~6개월)를 둔 아버지들 중에서 편의모집방법에 의해 선정된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8명이었고, 사후조사까지 완료한 최종 연구참여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7명이었다. 실험군에게는 본 연구 에서 개발된 5주간의 부아 상호작용 증진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전 동질성 확인 후 일반화 추정방정 식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실험군을 대상으로 취합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군의 아버지와 대조군의 아버지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점수 변

화량, 특히 돌봄제공자 측면의 점수변화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72). 그러나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은 그룹과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영아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 내 돌봄제공자를 위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정확한 영아발달지식을 바탕으로 부아 상호작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안배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스케쥴을 허용하고, 개별적인 상담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화상담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조부모,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타인돌봄제공자, 정상아, 질환 아동 등 각기 다른 상황의 대상에게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아버지들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충하고, 토론 등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들 간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보완 및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주요어: 영아, 아버지, 부아상호작용,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

학 번: 2015-2053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Ⅱ. 문헌고찰 ·····6
1. 아버지의 영아돌봄 ·····6
2. 아버지 역할 중재프로그램 ·····13
3. 부아 상호작용과 애착 ·····18

Ⅲ. 이론적 배경 ·····21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21
2. 연구가설 ·····23

Ⅳ. 연구방법 ·····24
1. 연구설계 ·····24
2. 연구대상 ·····26
3. 연구도구 ·····27
4. 프로그램 개발 ·····30
5. 자료수집 및 절차 ·····39
6. 자료분석방법 ·····42
7. 연구자의 준비 ·····43

8. 연구의 윤리적 고려 ·····44

V. 연구결과 ·····45
1. 프로그램 운영 ·····45
2.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50

VI. 논의 ·····63
1. 프로그램의 적용 ·····63
2. 프로그램의 효과 ·····66
3. 연구의 제한점 ·····71
4. 간호학적 의의 ·····73

참고문헌 ·····74

부록 ·····93

Abstract ·····127

List of Tables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24
Table 2. Teaching Materials and Suggested Age Ranges for Tasks ·····32
Table 3. The Objectives of Program ·····33
Table 4.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ogram ·····35
Table 5. Study Process ·····49
Table 6. Homogeneity Test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t Baseline ·····51
Table 7. Homogeneity Tests of Outcome Variables at Baseline ·····52
Table 8. Results of paired t test of Outcome Variables ·····53
Table 9. GEE Results of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56
Table 10. GEE Results of Father-infant Interaction ·····58
Table 11. GEE Results of Father-infant Attachment ·····61
Table 12. Result of Program Satisfaction ·····62

List of Figures

Figure 1. Diagram of Kathryn Barnard's Child Health Assessment Interaction Theory ·····2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2
Figure 3. Program Developmental Process ·····31
Figure 4.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enrollment, allocation, follow-up, and analysis ·····41
Figure 5. Materials for Father-infant Activities ·····47
Figure 6. Changes in Knowledge for Infant Development ·····56
Figure 7.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total score ·····58
Figure 8.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caregiver ·····59
Figure 9.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infant ·····59
Figure 10. Changes in Father Infant Attachment ·····61

List of Appendixes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93
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문지 ·····101
부록 3. 연구참여자 모집글 ·····112
부록 4. 온라인 아버지 커뮤니티 및 강의안 ·····113
부록 5. 부아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서면 피드백(예시) ·····120
부록 6. 프로그램 운영 결과(실험군) ·····122
부록 7. 부아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서면 피드백(온라인 게시판 업로드 화면 캡쳐) ·····123
부록 8. 프로그램 만족도 주관식 문항 답지 ·····124
부록 9. 윤리심사승인서 ·····12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중대한 사건이며 삶에서 경험하는 큰 도전으로 이 시기를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인식변화, 일과 가족의 균형, 관계의 변화, 배우자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려 과중한 부담을 느끼기 쉽다(Crepsi & Ruspini, 2015).

영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발달의 영향력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크다. 이 시기 영아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박성연 등, 2003). 그러나 많은 아버지들이 영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적 지지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신성숙, 2017) 만 0~3세 자녀를 둔 아버지교육의 실시율이 14.9%로 낮았고, 참여율은 4.6%로 더욱 저조하였다. 아버지들은 간호사와 같은 의료전문가로부터 그들의 고유한 요구와 질문,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 내 아기돌봄과 관련된 아버지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의료인으로부터 그들은 방관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horey et al., 2017).

국내에서도 2006년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역할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아버지들의 교육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권순임, 구수연, 2014; 안혜선, 방경숙, 2014; 이서연, 2018).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아동의 애착형성에는 부아상호작용이 작용한다. 애착관계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동학적 관찰이 요구된다(Grossmann & Grossmann, 2020). 그러나 부아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초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게 아버지 양육참여와 연관되어 있다(오혜진, 도현심, 2019; 김은향, 고은경, 2019). 198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루어진 측정과 평가 연구는 5편,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는 2편에 불과하다(이미현, 최혜순, 2014). 또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와 아동,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중재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돌봄제공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돌봄제공자가 아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기질을 잘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반응을 함으로써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으로 영아 기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방경숙, 2001) 따라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중재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아 상호작용 증진에 중점을 두어 영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하여 그 효과와 만족도, 지역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영아 아버지를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된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영아발달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개발된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4) 개발된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영아기

영아기는 출생 후 1개월에서 1년까지를 말한다(홍창의, 2008; Potts & Mandleco, 2007). 본 연구에서도 이 시기를 영아기로 포함하였다.

2) 영아발달지식

영아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영아의 전반적 발달과정과 내용을 알고, 영아를 지원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를 영아발달지식이라 한다(Tamis-LeMonda, Shannon & Spellaman, 2002). 본 연구에서는 MacPhee (1981)가 개발한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부아 상호작용

부아 상호작용은 아버지가 애정어린 결속감을 갖고 영아를 향해 따뜻하고 반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nard의 상호반응적 교수 척도(NCAST Teaching Scale; Barnard, 1994)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척도는 양육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 사회정서적 성장 촉진, 인지발달 촉진과 같은 돌봄제공자측 총 4개의 하위영역과 신호의 명확성, 돌봄제공자에 대한 반응성 측정하는 아동영역의 총 2개의 하위영역에 총 7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연구대상자(아버지)와 자녀인 영아의 상호작용을 촬영한 영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예’, ‘아니오’로 체크하여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4) 부아애착

부아애착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감정이다(Greenberg & Morris, 1974).

본 연구에서는 Muller (1994)가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정적인 애착태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한규은(2001)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아버지에게 적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아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5)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영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위해 영아발달 지식을 바탕으로 Barnard (1978)의 'Child Health Assessment Interaction Theory'에 기반을 둔 부아 상호작용 증진 중재를 수행하여 부아애착의 변화를 기대하는 5주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회와 마지막 회는 30분 가량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실험군의 경우 구두 피드백에 더해 서면 피드백과 5주간의 동영상 강의, 개별적인 영아발달과 관련된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문헌고찰

1. 아버지의 영아돌봄

영아기는 출생부터 12개월까지로 이 시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영아기는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영아의 언어발달은 생후 8개월부터 3세, 성격과 신체발달은 12~24개월, 지능과 사회적 관계의 기초 형성은 8~24개월까지가 결정적 시기라고 하였다(Caplan & Caplan, 1980).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뇌발달의 약 60%가 만 2세 이전에 진행된다. 이러한 영아기 성장과 발달에 있어 일차적 환경 요인인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방경숙, 2001). 영아기의 발달은 개월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아의 월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이해해야 영아의 요구에 맞는 기대와 반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기에 빠르고 뚜렷하게 발달이 일어나는 영역과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을 영아발달지식(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이라 한다. Tamis-LeMonda 등(2002)은 영아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영아의 전반적 발달과정과 내용을 알고, 영아를 지원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를 영아발달지식이라 하였다. 올바른 양육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구사하여 자녀에게 맞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Tamis-LeMonda, Shannon, & Spellaman, 2002). 특히 어린 영아일수록 발달단계에 따른 영아의 욕구가 다르므로 양육자가 영아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경화, 손승민, 2012). 양육지식이 부족할 때 부모는 부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비현실적인 기대 즉, 지나치게 빠른 발달 혹은 늦은 발달을 자녀에게 기대하여, 현실과 기

대의 불일치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경하, 서소정, 2009). 이러한 스트레스는 방임, 훈계, 극단적으로 아동학대까지 야기할 수 있다(Huang, Caughy, Genevro, & Miller, 2005).

우리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핵가족화, 저출산, 여성의 고학력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함께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정 내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들은 직장생활과 가정 내에서의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이 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현정환, 2018). 김용익과 김낙홍 (2015)의 경험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자녀양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들 중에는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과 같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양육역량이 어머니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Lamb (2010)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참여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효과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 자녀에게서의 효과는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었다. Parke (2000)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효과에 대해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라고 칭하였는데, 친절하고 자주 칭찬하고 도와주는 아버지의 아이들이 높은 인지능력과 어휘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친한 아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잘 웃고, 떼쓰는 일이 적으며,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엄마와도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영아기에 시작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제왕절개 후 아버지로부터 피부를 맞댄(skin-to-skin) 돌봄을 받은 영아들이 젖을 빨 준비를 하는데 있어 좀 더 잘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고(Erlandsson, Dsilna, Fagerberg & Christensson, 2007), 신생아기부터 아버지와 양적으로 많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한 자녀는 생후 6개월 시점에 베일리 영아발달 척도를 통한 인지점수 측정 시 또래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Easterbrooks & Goldberg, 1984). 또한 영아 돌봄에 있어 인지적으로 더욱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더욱 따뜻한 상호작용을 한 아버지의 영아는 9개월 시점에서 인지발달지연이 적게 보고되었다(Bronte-Tinkew, Carrano, Horowitz, & Kinukawa,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걸음마기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과도 긍정적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한 아이는 3살 때 또래보다 IQ가 더 높고(Yogman, Kindlon, & Earls, 1995), 아버지의 긍정적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 높은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을 보인다(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 유사하게 아버지가 지지적으로 놀아준 학령전기 아동은 더 뛰어난 인지·언어 발달을 보였다(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란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잘 관리하며 문제해결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Kerr, Lunkenhermer, & Olson,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주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부아 상호작용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

통 능력이 발달했다. 또한 아버지가 양육참여는 영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협력성, 자기주장점수가 높아졌고 아버지가 자녀와 말을 자주 하거나, 신체 접촉을 많이 하고, 놀이를 많이 하는 등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성이 발달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서석원, 이대균, 2014). 영아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초기관계는 영아기와 그 이후 전 생애 사회·정서발달의 기초가 된다(최미란, 김현경, 2013). 신애선, 김경후와 유지은(201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여가가 영아의 내면적 문제행동 중 거부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가 영아와 함께 나들이하기, 등산, 외식, 동·식물원 등 함께 참여하는 여가시간을 늘릴수록 영아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와 말과 신체접촉을 많이 하고, 자주 놀아주는 양육참여를 보일 때 사회성이 발달되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정신, 2000). 또한, 아버지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과 기본 생활습관을 위해 조력하는 활동 참여도가 높을 때 영아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오혜진, 도현심, 2019)에 의하면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uertes et al., 2016; Hohmann-Marriott, 2011). 또한, 아버지의 직접적 양육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고 (Shapiro & Mangelsdor, 1994), 특히, 도구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황영미, 문혁준, 2006) 이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아버지가 참여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적게 느껴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들 중 부모의 특성에는 사회

계층에서 양육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태도가 꼽히며, 자녀의 특성에는 기질(Shaffer, 1993)이나 애착(Parke, 1990) 등이 있다. 양경수 (2001)는 온정적이고 허용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성을 길러 자녀를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정민과 김소향(2016)은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를 지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육방식을 유지할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상관이 있으며,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영아기를 포함한 이른 시기에 돌봄제공자와 민감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안정 애착 발달에 기여하며 이는 질환아동의 증상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진달래, 이소현, 2019; 김점희, 황재원, 2020). 반면에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학령전기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Meuwissen & Carlson, 2015). Hoffman (1960)은 아버지와 긍정적 관계를 맺은 자녀는 자신감이 높고, 현실적이며, 좌절 상태를 잘 극복하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자의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양육행동은 영아의 애착형성, 사회성 발달, 언어 및 인지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Ainsworth, Blehar, Water, & Wall, 1978). 최근에는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 이상으로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신념 등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해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김근혜, 2019).

Goodnow (1988)는 양육지식에 대해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육지식 형성에는 두 가지 경로, 문화 속에 포함된 발달에 관한 지식과 자신의 양육경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다. 문화를 통한 지식은 책, 인터넷 등의 출판매체와 소아과의

사 등으로부터 얻어진다(Goodnow, 1984). 부모가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양육지식은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적인 아동발달 상태에 관한 내용, 즉 발달 지식, 이러한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양육방식, 그리고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3가지 발달원리를 지닌다고 하였다(MacPhee, 1984).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는 기대를 갖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고,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며, 자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은순, 배진수, 2018; 홍순옥, 김성혜, 2008).

결혼 생활의 안정성, 질, 재정적 상태, 유년기 삶의 목표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남성들은 아버지 됨에 대한 준비 정도를 인지하고 임신한 파트너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못한다(May, 1982).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은 새롭게 아버지가 된 남성의 영아를 돌보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다(이경선, 2017). Cowan과 Cowan (1992)은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아기 엄마의 기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채 협상 과정을 거쳐 발전되는지 주목했다. 새롭게 엄마가 된 이들은 즉각적으로 아기 돌봄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게 되나 아버지의 경우 아이의 출생 전 결혼 관계가 만족스러웠을수록 출산 후 아기 돌봄과정에 더욱 많이 참여하게 된다(Wolfson et al., 1992)

아동의 전 생애 발달에 영향을 끼지는 수많은 영향요인 중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박신진, 이영, 2011). 양육에 관한 중재는 아동의 건강증진, 건강가족, 건강한 사회를 기약하며 사회・신체・정신적 측면의 인간건강에 영향을 준다(Panter-Brick & Leckman, 2013). Lamb (2000)은 부아 상호작용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버지 역

할이 영아의 사회화, 욕구충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제공, 문제행동 예방 등에 미치는 중요성을 뒷받침한다(Demir Öztü rk, 2018; Nordahl, 2014).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아버지의 영아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은 영아의 안정애착(Notaro & Volling, 1999), 걸음마기 부정적 정서 조절(Davidov & Grusec, 2006),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Amato, 1987),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Flouri & Buchanan, 2003)와 연관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역할 만족도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가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rown, Mangelsdorf, & Neff, 2012). 또한, 아버지 자신의 삶에의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Palkovitz, Copes, & Woolfolk, 2001), 타인을 돌아보게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게끔 한다(Knoester & Eggebeen, 2006). 이에 더해 부성역할에 헌신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일-가정 방해가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직업 수행도가 높아진다(Graves, Ohlott, & Ruderman, 2007).

2. 아버지 역할 중재프로그램

아버지 역할하기(fathering)를 개념화하는 시도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를 정의하는 데에서 시작된다(Fagan & Kaufman, 2015). Levine과 Pitt (1995)는 정서·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지할 수 있게 준비될 때까지 아기 만드는 것을 기다리는 남성, 아기를 가지고 법적으로 아버지됨을 확고히 하며, 임신기 이후로 자녀의 어머니와 정서·신체적으로 자녀를 적극적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돌보며, 경제적으로 자녀를 지지하는 것들이 책임감 있는 아버지를 정의내리는 요소라고 하였다.

국외에서 Helfenbaum-Kun과 Ortiz (2007)는 최초로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을 시도했다. Head Start에 참여하는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 칭찬과 보상, 제한 두기, 행동수정 등의 내용으로 8회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의 자녀들이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Taskin과 Erkan (2009)의 연구에서는 2~9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특성, 아버지의 특성, 의사소통 방법, 훈육방법, 아동행동장애 등의 내용으로 10회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양육활동 참여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데 기여하는 시간에 주의를 기울인 국외 중재 프로그램으로 Head Start, Early Head Start(EHS), Proyecto Papa in Accion, in Peru 등이 있는데, EHS는 미국 전역의 62,000 학령전 아동과 저소득 부모들에게 700건의 프로그램 이상을 통해 전파되었다. EHS는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건강증진, 아동발달의 향상과 모니터, 양육기술의 향상과 세 가지 접근에 기본을 두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동발달 서비스, 아동돌봄, 부모교육, 사례 관리, 건강돌봄과

의뢰, 가족지지 등이 있다(Vogel et al. 2011). 아버지의 행동 프로젝트(Action Project), “Proyecto Papa en Accion”는 Kolb (1984)의 경험 학습 순환구조(Experiential Learning Cycle)를 교육의 모델로 활용하여 조기 아동기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David Kolb는 학습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수동적으로 관찰하거나 듣는 것에 비해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5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은 5회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의 기초(basics of positive parenting), 어린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reading),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을 위한 지지 세션, 조기 아동기 발달을 위한 시각과 언어적 자극의 중요성에 관한 세션 등이 해당된다(McAllister et al., 2012).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 중재로 터키의 Father Support Program, 파키스탄의 Rozan, UNICEF Papa Schools가 있다. 터키의 FSP는 1990년대 후반 아버지들이 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지지로부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깨달아 설립되었다. 매주 13세션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은 후 2~10세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까지 533명의 남성 선생님들이 그룹 리더가 되는 교육훈련을 마쳤으며 학교에서 아버지들을 모집하여 2009년 경 9.935명의 아버지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저소득 국가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는 드문 편이나, 아동 성 학대의 희생자에 대한 감정적 이슈를 다룬 프로젝트에 아버지들을 포함시킨 파키스탄의 Rozan이 대표적이다. 남성들이 아동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집합장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조기 아동발달에 대해 집단으로 토의하는 활동에 동기화되었다(McAllister et al., 2012).

Lucassen 등의 52건의 비동거(nonresidential) 아버지들에 관한 연구

분석결과는 비동거 아버지들의 접촉의 양과 경제적인 제공은 아동의 안녕(well-being)과 관련이 없었다(Adamsons & Johnson, 2013).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도(closeness), 믿음(trust), 지지(support)와 같은 비동거 아버지와 자녀와의 다양한 관계의 질을 측정한 결과는 자녀의 사회・행동・인지・정서 결과와 연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아기 이후에 아버지가 일찍 양육에 참여할수록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이 있다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를 한 아기의 경우 아버지가 캥거루 케어에 참여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젖을 빨기에 더욱 침착한 아기의 상태를 보여주었다(Erlandsson et al., 2007). 영아의 9개월, 18개월에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았다(Bronte-Tinkew et al., 2008; Chiang et al., 2015). 영아와 민감도 높게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McAllister et al., 2012).

국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1960년대 초부터 대학 부설기관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96년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녀 아버지 대상 부성계발 프로그램 등이 알려져 있다(김정희, 1999). 최근에는 기독교적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권위 회복에 초점을 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좋은 아버지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버지교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지원기관이다. 강의는 영유아 자녀들

을 둔 아버지의 역할과 가족관계, 영유아의 존중과 권리, 연령에 따른 발달 및 영유아 지도법, 상호작용 방법 등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2016년 기준 전국의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아버지 자조모임, 요일구분 없는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다양한 가족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순옥과 이민아 (2006)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아기 아버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 개발 근거로는 강경옥 (2002)의 아버지의 요구도 조사연구 결과 '영아 양육과 건강', '영아의 생활지도',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 '영아와 의사소통',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다. 이에 총 5가지 주제별 3회의 강의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박신영과 이진희 (2013)은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아버지의 놀이 신념과 부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들의 놀이에 대한 의미변화 등의 놀이를 지지하는 신념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언어적 모델링, 사회적 상호작용, 긍정적 태도, 민감한 반응으로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아버지교육을 제공한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권기남, 2012; 권순임, 이수연, 2014). 권미경(2012)은 아버지들에게 10회의 교육과 16주 동안 도서대여를 실시하여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양육참여도, 아버지-유아관계, 아버지-유아 책읽기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저소득층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양육행동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교육효과가 있었으며, 아버지-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아버지의 양육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권기남, 2012).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아기 아버지 교육은 교육 내용이 자녀와의 놀이 활동만을 다루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의 총점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권순임, 이수연, 2014).

이와 같이 기존의 아버지 역할 중재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영아기 아버지들이 영아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 외 아버지 교육을 시행할 때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교육 시행률이 낮고,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율이 더욱 저조하다는 현실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첫 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2회 이후로는 온라인 강의와 개별화된 상담 등을 활용해 학습의 속도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아버지들이 부모로의 전이시기의 아버지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기대하였다.

3. 부아 상호작용과 애착

애착의 상호성은 애착의 질적 차이가 양육자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방법과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육자나 자녀의 특성뿐 아니라 상호적 특성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Egeland & Faber, 1984). 많은 선행연구 결과 모아 애착은 어머니의 태도, 영아의 특성, 모아 상호작용, 상황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y & Bussey, 1984). Ainsworth (1979)는 애착에 있어서 어머니의 행동이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민감성의 차이가 애착관계의 차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감성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인식하고, 신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40년대 모아관계가 영아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영아발달에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형성 및 다양한 자극의 중요성이 알려져 왔고, 아동의 발달이 모아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에는 생후 1년 동안 발성영역과 시각영역의 협응을 관찰하기 위해 모아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Northrup, Iverson, 2020),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피부를 맞댄 접촉의 모아 상호작용 효과의 비교 연구(Helmer, Thornberg, Frostell, Örtenstrand, & Mörelius, 2020)와 같이 모아 상호작용의 효과를 구체화하여 탐색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의 역할을 구분하여 애착연구가 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수행되었으나,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Bureau et al., 2017). Zahn-Waxler (2020)에 의하면 아동과 양육자의 초기 애착관계의 질이 뇌의 성숙에 영향을 주어 친사회적 행동 발달

에 기여하는 변인이 되며, 양육자의 민감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아동의 공감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와 영아의 관계가 모아 관계와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머니가 아기의 환경에 대한 탐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안아주는 반면 아버지는 아기가 원하거나 놀아줄 때 가끔 안아준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능숙하고 민감하게 영아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영아를 안고 눈맞춤을 하며 활발하고 자극적인 행동을 보였다(Yogman, 1982). Lamb (1986)은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일상적인 것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짧지만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대체로 어머니보다 신체적 애정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상호작용을 할 때 자녀의 행동과 정서에 반응이 적게 나타나며 자녀의 언어 수준에 맞추지 못한다(Fagan & Palm, 2004)

영아를 향해 따뜻하고 반응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애정어린 결속감이 필요하다. Bowlby (1988)는 영아의 애착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에 요구되는 안정감을 주고받는 부모로부터의 돌봄체계와 상호작용한다고 하였고, 최근의 연구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갖는 “정서적인 유대”는 Rempel과 Burris (2005)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한 동기 경험(motivational experience)으로 상정된다. 애착안정성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애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서동미, 2009). 영아에 대해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서적 유대가 가지는 영향력을 추구한다(Rempel, Rempel, Khue, & Vui, 2017). 아버지가 영아에게 느끼는 애착은 아동기(childhood)의 안정애착을 증진하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돌봄을 촉진하는 데 기본이 된다(Bakers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 Juffer, 2003).

안정애착관계를 활용하는 중재는 긍정적인 부모됨(positive parenting)에 초점을 두어 아동이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행동문제로 발현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Bakers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 Juffer, 2005). 이러한 중재는 아동의 애착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과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돌봄제공자의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메타분석 연구결과 88건의 연구결과 중 70건의 연구결과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다(Bakers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 Juffer, 2003).

Ⅲ.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틀

Kathryn Barnard (1978)의 '아동 건강 사정 상호작용 이론(Child Health Assessment Interaction Theory)'에서 돌봄제공자, 환경과 아동요소들 간에 교차하는 모형은 여러 집합 간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Figure 1). 돌봄제공자, 환경, 아동 모두가 교차하는 지점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아동에 있어서 교차하는 지점이 없는 영역에는 개인적인 특성 중 신체적 특성, 기질, 먹고 잠자는 패턴, 자기 조절(self regulation)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돌봄제공자의 정신·사회적 자질, 신체·정신 건강, 삶의 변화, 자녀에 대한 기대와 걱정, 돌봄제공자의 양육 스타일과 적응능력 등이 있다. 끝으로 환경 영역에는 사회·재정적 자원, 지역사회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영유아 아버지들을 위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부아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돌봄제공자인 아버지-영아 체계에 영향을 주므로 적응 행동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수정하여 체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게끔하며 결과지표로써 영아발달지식의 증가, 상호작용의 촉진, 부아애착의 증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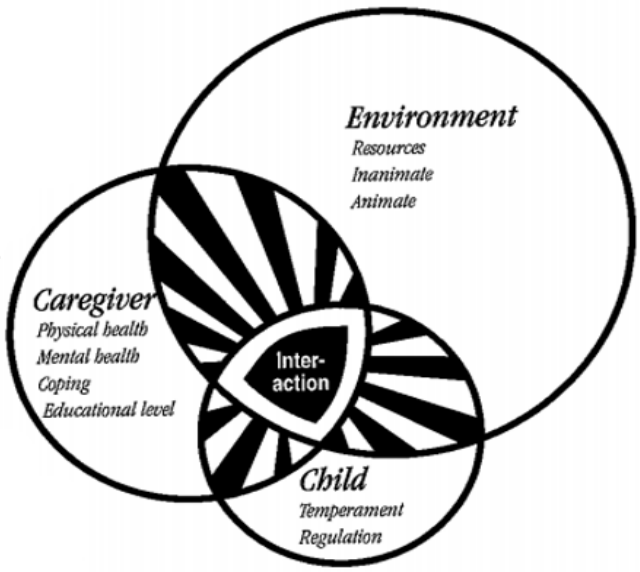


Figure 1. Diagram of Kathryn Barnard' s Child Health Assessment Interaction Theory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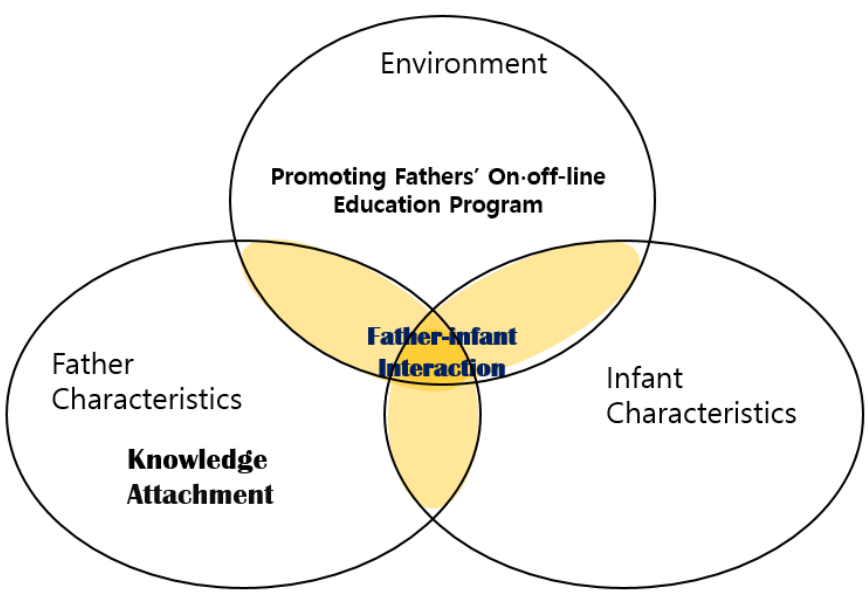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총 5회의 아버지를 위한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이하 실험군)이며, 대조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이하 대조군)이다.

가설 1.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영아발달지식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2-1.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돌봄제공자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2-2.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아동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애착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영아발달지식, 부아상호작용, 부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Table 1.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Group	Pre-test (Baseline)	Intervention (5-weeks)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X: On · off-line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Father-infant Interaction

실험군에게 2회의 가정방문(30분)과 개별교육(30분～), 5회의 온라인 교육(60분*3회, 30분*2회)으로 총 5회차로 구성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블렌디드 러닝 모델에 따라 그룹으로 중재를 진행하되 개별적인 요구와 스케쥴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1주일에 1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주말 외에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아버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개개인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시기를 자율

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였다. 1회차와 5회차에는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교육을 30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 3, 4회차에는 온라인 강의가 각각 60분씩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 대상으로 중재 직전 온라인 사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온라인 교육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진 직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 사전·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조군에게는 2회 가정방문(30분)을 통한 영상촬영 외 영상분석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온라인교육은 사후조사 이후에 제공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 방법으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측정 횟수 2회로, 효과크기는 아버지의 민감성과 애착에 대한 메타분석(Lucassen et al., 2011)과 선행연구(Flynn-Bowman, 2019)를 참고하여 0.35로 설정하였다. 각 군에 필요한 표본수는 10명으로,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이 필요했다. 연구참여자 모집 시점인 2020년 1월 ~ 2020년 6월에 자녀의 연령이 만 8 ~ 24주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3곳에 거주하는 아버지들 중에서 다음의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실제로 모집된 인원은 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이었으며, 사후조사까지 완료한 최종 연구참여자는 실험군 15명, 대조군 17명이었다.

1) 선정기준

- 아기엄마가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보편방문에 참여한 가정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재정 지원에 따라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2019년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전체 사업 대상 출생아의 약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됨.

- 자녀의 연령이 만 8 ~ 24주인 아버지
- 연구의 목적은 이해하고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 미숙아, 저체중아, 조산아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강혜원(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자녀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다.

2) 영아발달지식

영아발달지식은 MacPhee (2002)의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의 58문항 중 발달기준/발달규준에 관한 19문항을 사용하여 김이진 (201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3, 7, 8, 13, 17 총 5문항이 인지발달 영역, 2, 5, 9, 12, 16 총 5문항이 사회정서발달 영역, 1, 4, 6, 14, 19 총 5문항이 신체발달 영역, 11, 13, 15, 18 총 4문항이 언어발달 영역이다. 점수는 MacPhee (2002)가 제시한 정답에 의하여 채점하고 정답에는 1점을, 오답과 '잘 모르겠다'에 표시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67이었다.

3) 부아 상호작용

부아 상호작용은 Barnard (1994)의 NCAST 교수척도(Teaching Scale)을 이용하여 관찰한다. 이 도구를 통해 생후 0~36개월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차원을 포함하여 이후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일 전후로 시행할 수 있는 발달과업인 딸랑이, 블록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기, 꽥 소리나는 오리인형 쥐어보기 중 영아의 개별발달에 맞는 활동을 한 가지 선정하여 실행해 봄으로써 아버지측 반응

을 4개의 하위영역인 신호에 대한 민감성(16점), 괴로움에 대한 반응(17점), 사회-정서 성장 촉진 양육 행동(14점), 인지 성장 촉진을 위한 양육 행동(23점)으로, 영아측 반응을 2개의 하위영역인 신호의 명확성(10점), 부모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25점)(예, 아니오 이분형)하여 총 73문항에 대해 점수화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예'는 1점이고, '동시성(contingency)' 문항은 2점으며, 돌봄제공자(아버지)측 점수의 합계는 73점, 아동(영아)측 점수의 합계는 32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0-10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은 비구조화된 형태로 교수 상황을 제시한 후 연구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한 경우 연구자가 핸드폰을 이용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찰했다. 사전 관찰은 사전 설문조사 작성 후 시행하였고, 가정방문은 30분 이내로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이내, 연구설명 및 동의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0~15분, 간략한 구두 피드백 및 마무리가 5분정도 소요되었다. 사후 관찰은 5주간의 동영상 강의에 60%이상 참석한 경우 부모의 가정방문 동의 하에 사전의 가정방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아 어머니가 연구자가 영상을 촬영하였던 방식으로 아버지-영아의 활동 영상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간 화면을 연구자에게 전송해주었다. 영상을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편향의 작용을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여부를 알지 못하는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생(NCAST Certificate 소지자)이 측정한 점수를 결과에 활용하였다.

4) 부아애착

Muller (1994)가 모성의 영아에 대한 애정적인 애착태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한규은 (2001)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아애착을 아버지 스스로 측정하는 총

26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26점에서 최고 10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아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5, 한규은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였다.

4. 프로그램 개발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아버지의 영아발달지식을 높이고,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며, 영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성장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부아애착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최윤주와 곽한영 (2015)이 제시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개발모델을 따른다. 이 모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안내, 준비, 발표, 강의, 피드백하는 블렌디드 러닝 모형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직접 가정 방문과 온라인 형식을 병행하여 중재 및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던 본 연구를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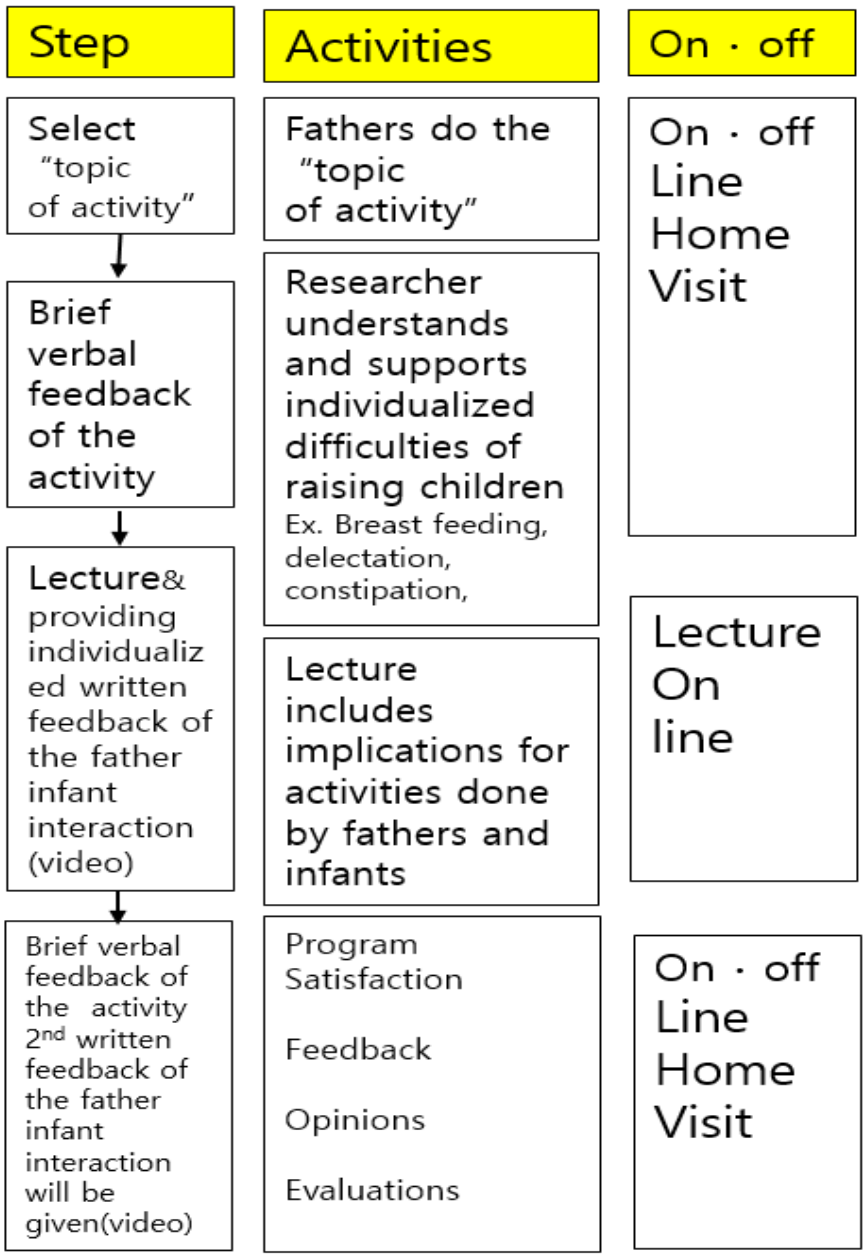


Figure 3. Program Developmental Process

1) 활동 주제 선정

아래의 Table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구자가 부모와 함께 영아의 월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주제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만 8~24주 영아들은 주로 '딸랑이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활동과 '블록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활동을 하였다.

Table 2. Teaching Materials and Suggested Age Ranges for Tasks

Child Activity	Age	Material
1. Child can hold on to the rattle.	0-3m	barbell rattle
2. Child can follow the rattle with his/her eyes.	0-3m	barbell rattle
3. Child can imitate caregiver's showing of tongue.	0-3m	parent's tongue
4. Child can reach for the rattle.	2-6m	barbell rattle
5. Child can transfer block from one hand to other	3-6m	one block
6. Child can squeak the squeaky toy.	3-6m	squeaky toy
7. Child can pick up a food object such as a cookie or cracker and eat it	6-9m	cracker or cookie
8. Child can scribble on the piece of paper	6-9m	crayon and paper

2) 간략한 피드백

아버지와 영아가 활동 후 연구자가 아버지와 영아에게 각각 감사의 인사를 건네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 부아상호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강점을 한 두 가지 간략하게 그 즉시 피드백으로 제공했다.

3) 강의

촬영을 마친 활동과 관련된 영상자료로 구성된 동영상 강의를 아버지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아버지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도왔다. 프로그램과 강

의 진행에 대한 목적과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조군의 경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소에 대한 정보를 사후 가정방문이 끝난 시점에 제공하였다.

Table 3. The Objectives of Program

	Objectives	Contents
1 wk	The father can describe the teaching loop of the teaching interaction with the infant.	Engagement & Disengagement Cues Infant States and Strategies
2 wk	The father can predict the child'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ge of the month.	Infant Development (3~6M) Shaken Baby Syndrome Sudden Infant Death
3 wk	The father can predict the child'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ge of the month. The father makes a plan to visit the hospital for the child's vaccination.	Infant Development (7~12M) Vaccination and Going out for the Hospital
4 wk	When raising children, make a plan for what to do when parenting values conflict with others.	The philosophy of raising children and attitude of empathy
5 wk	Fathers can describe the desirable relationship they dream of with their children.	Sharing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4) 서면 피드백

실험군의 경우 아버지와 영아가 활동한 장면을 연구자가 촬영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아버지들을 위한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데 이때 파일을 암호화하여 암호는 아버지들에게 개인연락을 취하여 전달했다. 아버

지들은 개별적인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내용 관련하여 전화로 추가 질의를 하거나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기는 아버지는 없었다. 구두 피드백보다 구체적인 영상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피드백의 경우 대조군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주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후 가정방문이 끝난 시점에 제공하였다.

5) 온오프라인 가정방문

가정방문 결과 최종적으로 총 방문 64건 중 26건이(40.6%) 오프라인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와 영아의 활동 영상녹화를 종료한 후 연구자가 아버지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구두로 부아상호작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Table 4.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ogram

	Topic	Contents	Methods
1	Concept of Teaching Loop & Engagement & Disengagement Cues of my baby	1. Check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baby, such as the baby bed and home environment. 2. Conduct education on safety management. 3. Explain the baby's sleep and state of consciousness 4. Explain the baby's signals that can facilitate interactions. 5. While raising a baby,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what the father has been curious about.	Home Visitation (30min) 1:1 Feedback Q&A
		The video feedback content analyzed through the first home visit is organized and the core content is delivered.	Verbal & Written Feedback (A4 2page) 1:1 feedback online community (fathers' camp)
		1. Teaching loop. 2. Be aware of baby's signals. 3. Know baby's status.	Video Clip Lectures (60min)

	Topic	Contents	Methods
		4. Develop strategies to change baby's status. 5. Implement strategies to change baby's status. 6. Express what fathers expect of this program.	online community (fathers' camp)
2	Monthly Development of my baby	1. Provid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infanct growth and development (3M-6M) to help predictive guidance. 2. It provides information to soothe baby's crying and prvent shaken baby syndrome. 3. Provides guidance on the prevention of sudden infant death	On line Lecture Video Clip (60min) online community (fathers' camp)
3	Monthly Development of my baby	1. Provid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infanct growth and development (7M-12M) to help predictive guidance. 2. Provis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3. Sharing of work related to parenting 4. Understanding of separation anxiety Going out to the hospital for vaccination	On line Lecture Video Clip (60min) online community (fathers' camp)
4	Parenting philosophy	When raising children, make a plan for what to do when parenting values conflict with other people.	On line Lecture Video Clip (60min)

	Topic	Contents	Methods
			online community (fathers' camp)
5	Role of fathers	1. Fathers can describe the desired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at the fathers dream of. 2. The video feedback content analyzed through the second home visit is organized and the core content is delivered. 3. While raising a baby,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what the father has been curious about.	telephone Zoom or Home Visitation 1:1 Feedback Q&A

6)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두 번째 방문이 종료된 후 아버지들에게 사후검사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온라인 설문지에 가능하면 즉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족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주관식 문항과 개선할 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 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보편 방문 높은 참여율이 보장되는 네 곳의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세 곳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아 자료수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실험군을 한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대조군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지역 할당은 편의 배정이 이루어졌다.

8주 이내에 보편방문이 이루어진 가정의 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기 연령이 만 8~24주인 시점에 연구참여모집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지원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 검사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에 동시에 온라인 설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화면에서 연구에 대한 개요와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사전 검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 측정이 이루어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1차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며 이때 부아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 검사도 이루어졌다. 실험군에서는 5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온라인 교육은 파워포인트를 연구자가 구두로 설명하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아버지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강의게시판' 에 업로드해두었다. 회원가입을 한 연구대상자(실험군)들은 접속하여 개별적인 스케쥴에 수강하거나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었다.

5회 모두 참석하고, 1주일에 1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주말 외에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아버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회까지 불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사후조사는 마지막 5회차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와 같은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대조군에 대한 윤리적 배려로 사후자료 수집 후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피드백과 강의 동영상 파일을 아버지 개인별로 전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였을 때 답례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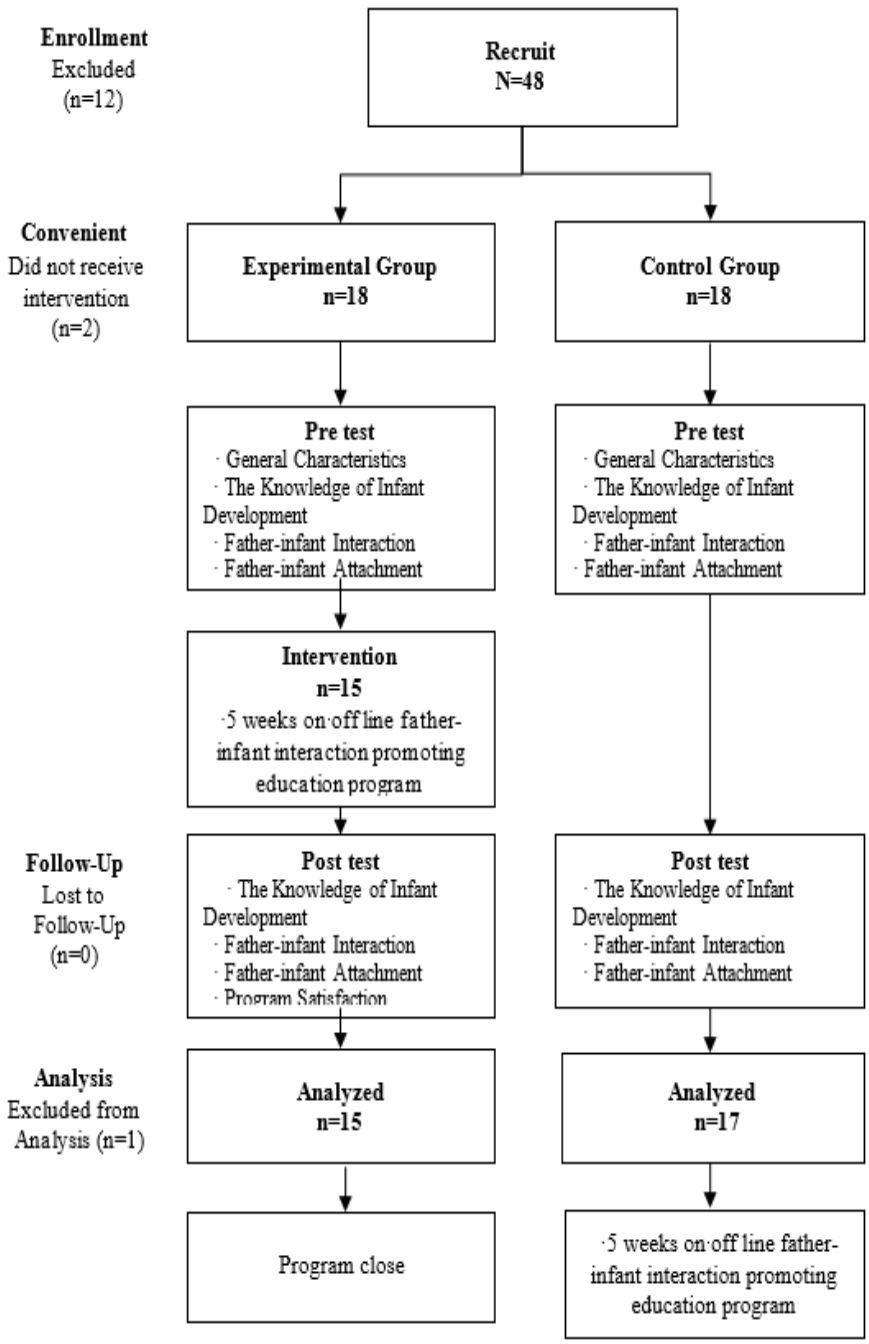


Figure 4.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enrollment, allocation, follow-up, and analysis

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version 25.0 for Windo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서 각 변수들의 사전 점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 간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사전, 사후 그룹 간 결과변수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표본크기가 작은 관계로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7.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NICU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며,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연구원으로서 사업 참여 산모의 사업 만족도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해왔다. 2015년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NCAST) Feeding & Teaching Scale’을 이수하였고, 도구 사용이 가능한 자격증(certification)을 발급받았으며, 2020년 NCAST PCI Teaching Scale Online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였다. 2019년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Family Partnership Model Training’을 이수하였고, 이 교육과정은 간호사, 부모 등 아동과 관련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이 조력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탐색하도록 돕고, 타인을 돕는 데 필요한 개인적 자질과 대인관계 기술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상호·실험적 과정이다.

8.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지원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된 사업과 연관된 대상자들에게 모집공고문이 배포되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상의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고지하였다. 참여 중단 시 기존에 수집된 자료 폐기와 연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을 어디로 문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하였다. 아버지와 아기의 상호작용 관찰을 위한 영상촬영 과정 진행 전 아기에 대한 동의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후 동의하에 영상촬영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무의미한 고유번호로 대체하고 암호화한 파일로 만들어 USB에 보관하고, 연구자만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조군에 대한 윤리적인 배려로 사후검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중재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결과분석에만 사용되며, 익명 처리된 자료는 5년간, 점수화된 동영상 자료는 연구 기간인 2021년 6월까지 보관 후 폐기처리 될 예정이다.

Ⅴ.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운영

본 프로그램은 총 5주간 진행되었으며, 2회의 가정방문과 영상분석에 대한 피드백, 개별상담, 5주간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었다. 본 강의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수이자 Barnard Center 설립자 Kathryn Barnard가 개발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사정 도구(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겸 중재 프로그램을 영아 아버지들에게 개별화하여 알맞게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은 프로그램 일정이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측정 및 중재를 위한 1, 5주차 가정방문 시 짧은 시간이나마 연구자에게서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에 대한 구두 피드백을 받는 기회가 제공되며, 가정방문 후 대략 1주일 안에 실험군의 경우 촬영 영상에 대해 암호화된 기록지와 암호, 영상파일을 전달받도록 하였다. 가정방문 직후 실험군에게 즉시 제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아빠캠프')주소 링크를 눌러 회원가입 요청을 하면, 연구자가 즉시 가입을 허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부록 5).. 온라인 커뮤니티('아빠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총 60분 상당의 3회기, 30분 상당의 2회기 온라인 강의 영상, 실험군 개별 가정방문 결과지를 업로드하는 '아빠와 아기 동영상 분석 결과'.와 강의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아빠 게시판'을 마련하였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공개로 연구자가 운영하며 실험군 대상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아빠캠프’ 주소를 문자로 안내하고 회원가입을 독려한 후 회원가입신청이 도착하면 연구자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려 즉시 알고 회원가입을 승인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 수강여부를 답글로 남기고 모든 영상에 답글을 남겼을 때 사후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 강의 시청을 독려하였다. 1주차 사전조사를 위해 촬영한 영상에 대한 분석은 1주일 안으로 완료하여 비밀암호를 걸어 ‘아빠캠프’에 게시하고, 아버지에게 SMS를 통해 암호와 결과지 업로드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에 더해 요청이 있을 시 양육 관련 개별 전화상담을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고, 긍정적인 강화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

1) 가정방문

(1) 사전설문조사를 마친 대상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일정을 정하고, 가정방문을 시행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연구자는 가정마다 마스크와 비닐장갑(손소독 후)을 교환착용하고, 체온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며,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영상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아버지가 직접, 아기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서명을 하였다.

(3) 아버지와 함께 아기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한가지 선정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8~24주 영아들은 ‘딸랑이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활동과 ’ 블록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4) 아버지와 아기가 활동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영상을

촬영을 시작할 때 생일이나 기념촬영과는 다르다는 점과 연구자가 촬영 중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Figure 5. Materials for Father-infant Activities

(5) 촬영이 종료되면 아버지와 아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6) 도구와 동의서를 정리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즉시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활동장면에서 관찰된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실험군의 경우에 온라인 커뮤니티 “아빠캠프”를 통해 강의에 참여할 것을 안내했다

(7) 실험군은 해당 활동에 대한 분석결과지를 1주일 안으로 “아빠캠프” 게시판을 통해 제공받았다.

2) 영상분석

총 73문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방문과 활동의 내용이 실험·대조군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결과분석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확인한 Barnard Center에서 NCAST Teaching Scale Training을 받고 Certificate을 받은 박사과정생 1인이 채점을 맡아(대상자 정보 맹검)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피드백

연구자는 총 64건에 해당하는 영상을 모두 관찰하고 분석하여, 아버지들과 영상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결과를 구두와 서면으로 전달한다.

4) 개별상담

아버지들은 활동영상에 대한 궁금증, 피드백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에 영아의 발달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5) 온라인 강의

실험군 아버지들을 위한 커뮤니티 ' 아빠캠프 ' 자료 게시판에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6)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2번째 방문이 종료된 후 아버지들은 사후검사지를 온라인으로 전송받는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온라인 설문지는 가능하면 즉시 작성해줄 것으로 안내받았고,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족했던 점과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주관식 문항과 개선할 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Table 5. Study Process

Group	Variables	Pre test	Infant Fathers'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Father-infant Interaction					Post test
			1st wk	2nd wk	3rd wk	4th wk	5th wk	
Experimental	KIDI	■	・Home visitation ・verbal feed back ・online education1	witten feed back with individualized consultation of raising baby ・on line education 2	on line education 3	on line education 4	・Home visitation ・verbal & witten feed back with individualized consultation of raising baby	■
	Father-infant interaction(FII_Total)	■						■
	FII-Caregiver	■						■
	FII-infant	■						■
	Father infant attachment	■						■
	Program satisfaction							■
Control	KIDI	■	・Home visitation ・verbal feed back				・Home visitation ・verbal feed back	■
	Father-infant interaction(FII_Total)	■						■
	FII-Caregiver	■						■
	FII-infant	■						■
	Father infant attachment	■						■

2.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의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6).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실험군에서 만 35.54세였고, 자녀의 연령은 생후 14.33주였다. 대조군에서는 아버지의 평균연령이 만 34.94세였고, 자녀의 평균연령은 16.47주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가구소득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전문대졸이 각각 2명(13.3%), 1명(5.9%), 대학원 이상이 각가 4명(26.7%), 7명(41.2%)를 차지하였고,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9명(60.0%), 9명(52.9%)가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구간마다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아 상호작용 관련 특성인 첫 자녀 여부, 타인양육 여부, 이전의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서로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Homogeneity Test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t Baseline (N=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15)	Con.(n=17)	t or x^2	*p*
		n(%) or M±SD			
Age		35.54±3.04	34.94±3.01	.380	.706
Education	Technical College	2 (13.3)	1 (5.9)	1.112†	.666
	Gollege	9 (60.0)	9 (52.9)		
	≧Graduate School	4 (26.7)	7 (41.2)		
Yearly Income (million won)	<,2000	0 (0.0)	1 (5.9)	1.365†	1.000
	2,000-3,000	2 (13.3)	2 (11.8)		
	3,000-5,000	3 (20.0)	4 (23.5)		
	5,000-7,000	4 (26.7)	4 (23.5)		
	7,000-10,000	3 (20.0)	3 (17.6)		
	≧10,000	3 (20.0)	3 (17.6)		
Infant age (wks)	<8	1 (6.7)	0 (0.0)	1.555	.130
	8-11	2 (13.3)	2 (11.8)		
	12-15	5 (33.3)	4 (23.5)		
	16-19	7 (46.7)	7 (41.2)		
	20-23	0 (0.0)	3 (17.6)		
	≧24	0 (0.0)	1 (5.9)		
Infant sex	male	10(66.7)	10(58.8)	.209	.647
	female	5(33.3)	7(41.2)		
First-time father	yes	13 (86.7)	14 (82.4)	.112	.737
	no	2 (13.3)	3 (17.6)		
secondary caregiver	yes	12 (80.0)	14 (82.4)	.029	.865
	no	3 (20.0)	3 (17.6)		
Parent education experience	yes	13 (86.7)	16 (94.1)	.521	.471
	no	2 (13.3)	1 (5.9)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 Fisher' s exact test

2) 결과 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인 부아 상호작용, 돌봄제공자 측 부아 상호작용, 영아 측 부아 상호작용,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두 군이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at Baseline (N=32)

Characteristics	Exp.(n=15)	Con.(n=17)	t	p
	Mean ± SD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11.67±4.35	13.82±2.63	1.720	.096
Father Infant Interaction Total Score	73.47±10.58	70.59±9.99	-.789	.437
Father Infant Interaction Caregiver Score	50.53±8.43	47.82±6.57	-1.00	.324
Sensitivity to Cues	13.13±1.73	12.12±2.15	-1.482	.149
Response to Child's Distress	14.47±2.77	14.41±3.30	-.051	.960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10.93±2.76	10.35±2.42	-.628	.535
Cognitive Growth Fostering	12.00±4.05	10.94±3.94	-.747	.461
Father Infant Interaction Infant Score	22.93±3.11	22.76±5.43	-.110	.916
Clarity of Cues	7.27±1.10	7.65±1.22	.927	.361
Responsiveness to Caregiver	15.67±2.32	15.12±4.96	-.392	.698
Father Infant Attachment	92.40±6.69	94.12±7.41	.689	.496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 시간에 따른 결과 변수의 점수 변화

사전, 사후 조사 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영아발달지식, 부아 상호작용, 부아애착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실험군에서 중재 전후 시간에 따른 부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제공자 측면 중에서도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신호에 민감성이 높아졌다.

Table 8. Results of paired t test of Outcome Variables (N=64)

Group		Pre-test	Post-test	t
		Mean±SD		
Experimental (n=15)	Knowledge for Infant Development	11.67±4.35	13.13±3.60	-1.603
	Father Infant Interaction_Total	73.73±10.34	80.20±8.03	-1.454
	Father Infant Interaction_Caregiver	50.80±8.40	56.20±5.19	-1.897
	Sensitivity to Cues	13.13±1.73	14.47±2.07	-1.918
	Response to Child's Distress	14.47±2.77	14.27±2.63	.203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10.93±2.76	11.87±2.48	-.974
	Cognitive Growth Fostering	12.00±4.05	15.60±2.72	-2.856
	Father Infant Interaction_Infant	23.53±2.72	24.00±5.33	-2.332
	Clarity of Cues	7.27±1.10	7.40±1.77	-.248
	Responsiveness to Caregiver	15.67±2.32	16.60±4.15	-.760
	Father Infant Attachment	92.40±6.69	95.00±6.14	-1.454

Group		Pre-test	Post-test	t
		Mean±SD		
Control (n=17)	Knowledge for Infant Development	13.82±2.63	14.82±2.27	-1.738
	Father Infant Interaction_Total	70.59±9.99	68.82±9.58	.606
	Father Infant Interaction_Caregiver	47.82±6.57	46.76±6.68	.542
	Sensitivity to Cues	12.12±2.15	12.47±2.67	-.466
	Response to Child's Distress	14.41±3.30	12.29±3.46	1.826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10.35±2.42	11.41±2.24	-1.324
	Cognitive Growth Fostering	10.94±3.94	12.82±3.54	-1.464
	Father Infant Interaction_Infant	22.76±5.43	22.06±4.30	.529
	Clarity of Cues	7.65±1.22	7.06±1.25	1.388
	Responsiveness to Caregiver	15.12±4.96	15.24±3.53	-.080
	Father Infant Attachment	94.12±7.41	96.06±5.86	-.942

4) 가설검정

가설 1.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영아발달지식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 영아발달지식 점수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775) 가설 1이 기각되었다.

Table 9. GEE Results of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N=64)

		B	95% CI	*p*
KID	Intercept	13.13	11.37 to 14.90	<.001
	Group	1.690	-0.36 to 0.38	.106
	Time	-1.467	-4.23 to 1.30	.298
	Group* Time	.467	-2.73 to 3.66	.775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B=Beta coefficient, CI=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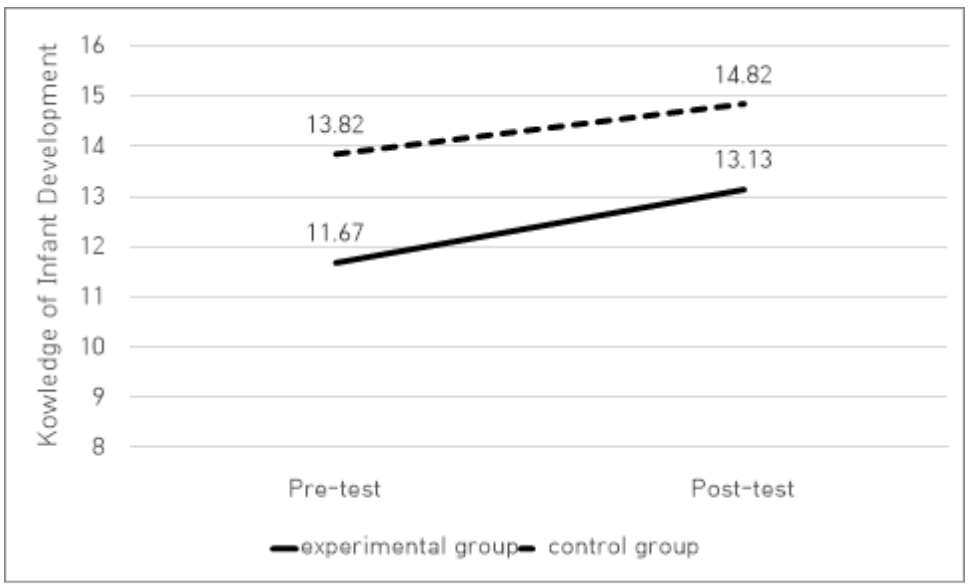


Figure 6. Changes in Knowledge for Infant Development

가설 2.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 부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부아 상호작용은 시간(p<.001)과 그룹(p<.05)에 따른 주효과를 보이고,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75)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10)..

부가설 2-1.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돌봄제공자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돌봄제공자 점수 변화량에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51) 부가설 2-1은 지지되었다(Table 10).

부가설 2-2. 실험군과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 상호작용 영아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영아 점수 변화량에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이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p=.596) 부가설 2-2는 기각되었다(Table 10).

Table 10. GEE Results of Father-Infant Interaction(FII)

(N=64)

		B	95% CI	*p*
FII-Total	Intercept	80.20	76.28 to 84.13	<.001
	Group	-11.38	-17.39 to -5.47	<.001
	Time	-6.47	-12.89 to -0.05	.048
	Group*Time	8.23	-0.82 to 17.29	.075
FII-Caregiver	Intercept	56.20	53.67 to 58.74	<.001
	Group	-9.44	-13.42 to -5.45	<.001
	Time	-5.40	-10.23 to -0.57	.028
	Group*Time	6.46	-0.02 to 12.94	.051
FII-Infant	Intercept	24.00	21.39 to 26.61	<.001
	Group	-1.94	-5.22 to 1.33	.245
	Time	-0.47	-3.39 to 2.46	.755
	Group*Time	1.17	-3.16 to 5.50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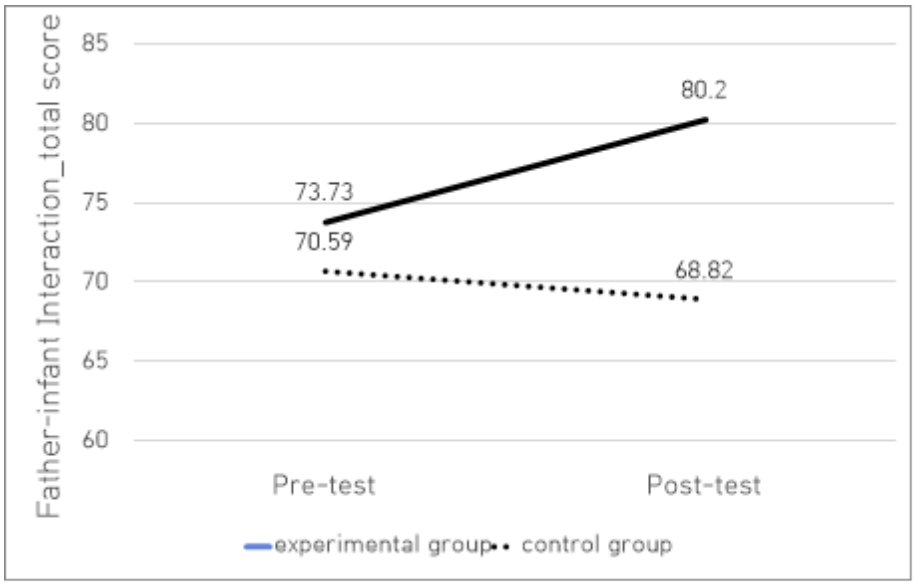


Figure 7.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total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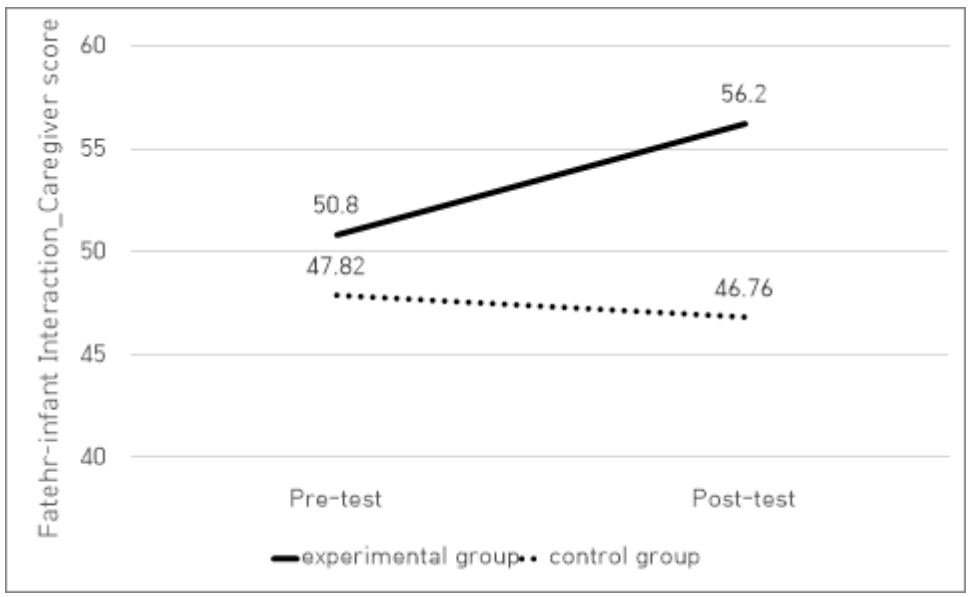


Figure 8.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caregiver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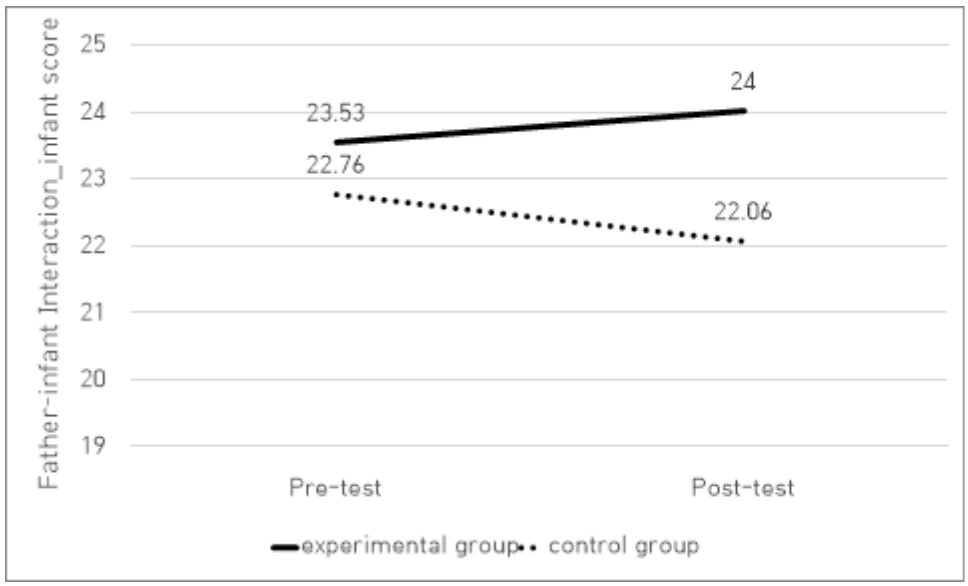


Figure 9. Changes in Father-infant Interaction_infant score

가설 3.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아애착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시간에 따른 사전-사후 부아애착 점수 변화량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11과 같다. 부아애착은 측정 시기와 집단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835) 가설 3이 기각되었다.

Table 11. GEE Results of Father Infant Attachment (N=64)

		B	95%CI	*p*
Father Infant Attachment	Intercept	95.00	92.00 to 98.00	<.001
	Group	1.06	-2.98 to 5.10	.607
	Time	-2.60	-7.04 to 1.84	.251
	Group* Time	0.66	-5.56 to 6.88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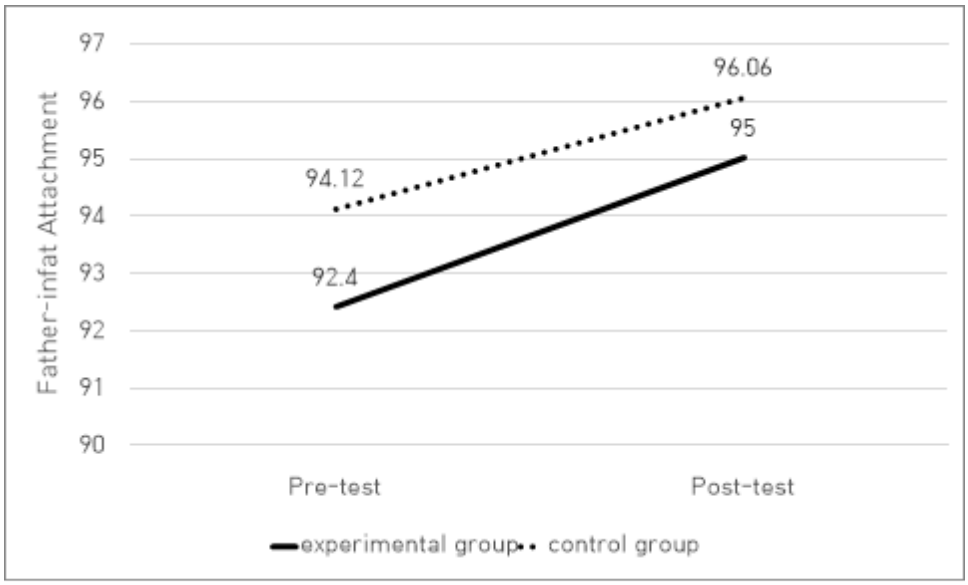


Figure 10. Changes in Father Infant Attachment

6)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를 수행하여 연구 참여자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질, 프로그램 만족도, 재참여 의사, 지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정도,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들을 객관식과 주관식 답변으로 취합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Table 12, 부록 8). 실험군 16명 중 중도 탈락 1명을 제외한 15명이 모두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의 질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척도의 문항에 대해 3.3~3.4점이었으나, 재참여 의사는 3.8점, 지인에게 권유하고 싶은 의사는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그 밖의 주관식 답변에 의하면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여 소통하고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답변과 아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론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에 비해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검토받은 점,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던 점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이의 성장에 따른 지식과 관련된 강의도 유익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특히 영아기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영아의 신호와 반응을 살피는 강의가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Table 12. Results of Program Satisfaction (N=15)

	Mean±SD
Quality of the program	3.33±0.49
Satisfaction of the program	3.40±0.51
I would recommend this program to my friend.	3.47±0.57
I would take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gain.	3.80±0.56

Ⅵ. 논의

기존 아버지 대상의 양육 중재 프로그램의 우선적인 구성요인은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관여 활동과 아기 엄마를 지지하는 것, 아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돌봄 활동 등이었다(Pleck, 2010).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양육과 상호작용에 개입하고자 했다. 전달 방식으로는 온라인에 업로드한 동영상 강의를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 외에 일대일 개별 문자, 유선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은 이론적인 내용에 더해 구두 및 서면 피드백이 주어져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부아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였다. 본 장에서는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아 상호작용 중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의 적용

아버지들은 자녀의 탄생과 양육의 참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지만(Zerotothree's national survey, 2015),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영역에서 소외된 느낌을 호소한다(Lau & Hutchinson, 2020). 기존의 부모됨으로의 전환기 아버지들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들은 대상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들만을 위하여 기획・제작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관여하기를 기대한다(Lau & Hutchinson, 2020; Magill-Evans, Harrison, Benzies, Gierl., & Kimak, 2007).

영아기 자녀와의 상초작용 증진을 위한 아버지 훈련 및 교육 과정 운영 전략을 살펴보면, 남성이 원하는 내용을, 남성이 원하는 때, 남성 구성원들의 조직 안에서, 남성이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다(Capuozzo, Sheppard, & Uba, 2010). 연구자는 여성이나 프로그램 전반적인 진행과정 동안 연구참여자인 아버지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정방문과 온라인 교육 외에도 전화와 문자연락, 파일전송과 확인 등 개별적인 피드백과 상담을 병행하면서 직장과 육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아버지들의 상황적 요인들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라는 중재에서 핵심이 된 환경과 아버지와 영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결정권한이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직접방문에서 연구자가 먼 거리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부아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을 방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비대면 실시간으로 온라인방문을 수행한 결과 아기 엄마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아기의 교수상호작용 장면을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기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부아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 한 명이 가정방문 스케쥴을 조정하여 약속된 시간에 차질없이 방문을 이어나가려고 하다보니 아기가 아버지와 교수상호작용을 하기에 좋은 상태(Quiet Alert)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하게 되었다. 이는 사전과 사후 결과의 변화를 비교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구자가 방문할 당시의 아버지의 정서와 아기의 상태에 따라 교수학습작용 결과 변동의 폭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방역기본수칙을 지켜야 했는데, 연구 대상자와의 첫 대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인사를 나누는 대신에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확인을 하는 동시에 손소독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2 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떨어져 있었으며, 부아 상호작용을 촬영한 즉시 현관문 밖으로 나가 전화를 이용해 관찰한 모습 중 강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로 아기와 지내는 공간인 가정에서 어떻게 교수상호작용은 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로부터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학습효과가 좋으며 만족스럽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환류했다.

특히, 모델이 역할극을 하는 장면을 보는 교육 영상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성찰하고, 관련된 피드백을 받는 것에 대해서 높은 효과를 확인했으며(Juffer et al., 2008; Lawrence., Davies., & Ramchandani., 2013),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버지들은 평소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으며, 아기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기의 정서와 행동에 대해서 언어적 반응을 통해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아이의 표정과 몸짓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변화된 점을 밝혔으며, 아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되었다고 하였다.

2. 프로그램의 효과

영아 아버지들은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들은 양육을 돕고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지만,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기와 함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낀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돌봄제공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돌봄제공자의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부아 상호작용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한다(Schoemaker et al., 2020; Alvarenga et al,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자폐아동, 학대 가정, 저소득 가정, 우울한 어머니 대상에서 효과를 보여 돌봄제공자 측면, 아동 측면에서 중재프로그램의 다양한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Komen et al., 2020; Tagavi et al., 2020; Asdonk, Cyr, & Alink, 2020)

본 연구에서 아버지 교육은 실험군에서 부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부아 상호작용은 NCAST로 측정하였고, 돌봄제공자 측면과 아동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연구의 아버지 교육은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가정 기반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중재를 제공하고 돌봄의 민감성과 돌봄의 질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Groeneveld et al., 2011).

시설기반의 돌봄제공자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에 대한 제고를 하는 기회들이 있지만, 가정 기반 돌봄제공자들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김길숙, 2017).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아기 가정 기반 돌봄제공자인 아버지가 정확한 영아발달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와의 부아 상호작용을 개선해 나간다면 아동의 건강과 발

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촉진적 중재는 어머니, 아이돌보미, 타인양육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교육은 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영아의 인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재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아동 측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으나, 프로그램 교육은 정상아, 질환 아동 다양한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모아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디오를 활용한 피드백 중재를 통해 전반적인 모아 상호작용의 증진과 엄마의 민감성, 언어적으로 인지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영아의 신호와 행동에 알맞게 반응하는 것의 효과가 확인되어 유사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Tryphonopoulos & Letourneau, 2020).

Chung 등 (2018)은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출산 후 시점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들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부모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Waterston et al., 2009). 또한, 영아기에 원만한 부아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발달을 자극하고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Vermeer & Bakermans-Kranenburg, 2008)

Reamer, Brady와 Hawkins (1998)에 의하면 비디오 자가 점검(Video self-modeling)은 목적하는 행동 변화를 위해 자신을 관찰하여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시 보는 것은 주의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더욱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모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육에 흥미를 느끼는데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받을 때 크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Juffer et al., 2008; Fletcher, 2009; Lawrence, Davies & Ramchandani, 2013). 부모가 아기의 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애착을 맺는 것이 아동의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돌봄제공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돌봄제공자의 민감성과 긍정적인 훈육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피드백 중재(Video-feedback Intervention to promote Positive Parenting)가 활용되어 왔다(Juffer, Bakermans-Kranenbrug, & Ijzendoorn, 2008). Helmerhorst 등 (2017)의 연구에서 5주 간의 비디오 피드백 중재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 돌봄제공자의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되었다.

부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육을 수행했을 때 실험군에서 영아발달과 관련된 지식이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것은 돌봄제공자가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 아동의 발달에 대해 지식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아이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좌절을 반복할 때 아동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Zand et al., 2013), 반대로 아동발달지식으로 아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학대나 방임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McMillin et al., 2015; Murphy, 2011; Del Vecchio, Walter & O’ Leary, 2009).

Macphee (1981)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KIDI 점수가 70% 미만일 때 학대와 방임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McMill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MacPhee (2002)의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의 58문항 중 발달기준/발달규준에 관한 19문항을 김이진(2018)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수정판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어머니에게 적용했던 도구를 아버지에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험군에서 5주 중재가 이루어진 후 KIDI 평균점수가 14.82점(78%)로 상승하였으나 사전조사 평균점수는 13.82점(72.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이었다. 심

성경 등(2007)의 영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정확도에 대한 연구결과양육 중인 자녀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정확도는 50% 내외, 0~2세 영아기 전체에 대한 지식 정확도 역시 50% 내외로 영아기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보육교사 대상 영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전후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아진 지식의 수준을 보인 연구결과들(김혜금, 2011; 박현정, 김일옥, 2016)이 있으나, 양육효능감과 영아발달에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식의 전반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다(이경하, 서소정, 2009).

아버지들은 자녀의 영아기에 육체적 피로, 부부 관계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적인 양육행동 개발 등의 도전을 받게 된다(Petch & Halford, 2008). Pinquart와 Teubert (2010)는 이러한 전환기에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메타분석하여 효과크기를 요소별로 도출하였다. 중재의 기간은 3~6개월 유지할 때 효과가 컸으며, 건강 증진 행위 관련으로는 그룹 중재가 효과가 컸으며, 아동의 사회성 발달 관련한 내용은 개별적인 중재 형식이 강한 효과를 보였다. 중재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가 컸다. 부아 상호작용의 증진과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 및 발달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과 앞선 연구결과들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에서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한 자녀 양육 연구 활동에의 참여는 부모-교육자의 소통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최근의 현상으로(서은영, 서현, 2018; 서종옥, 곽승주, 2018)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 습득 및 활용에 온라인이 주요한 자원임(김주후, 곽승주, 전유영, 2017)을 알고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에 본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 형태로 맞추어 제공된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온택트 시대에 시간와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부아 상호작용 증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버지들에게 효과적으로 부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에 기참여한 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홍보가 이루어졌고, 가정방문 스케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빈번했다. 아기와 아버지의 활동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버지 스스로를 이차적인 양육자로 인식하도록 하며, 아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과거에는 모성의 영역이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민감성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의 홍보, 연구진행의 과정에도 아버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래머와 교육대상자가 상호작용하며 교육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혼합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19가 자료수집 기간 중 급속도로 재확산되면서 교육형식과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토론 방식을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며,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부부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파트너쉽 향상, 직접 참여의 기회 제공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토론 등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아버지들 간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의 요구도 높고, 효과에 대해서

도 밝혀진 바 있다.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강의내용 전달 측면에서 음향 등 기술적 측면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강의자가 여성이다보니 아버지들의 경험에 공감하고 고유한 정서를 수렴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취약했던 점이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이었다. 대상자 측면에서는 부아 상호작용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자원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상자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된 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상자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서 오는 선택편의(self-selection bias)는 Costigan과 Cox(2001)가 지적한 바와 같다.

4.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아버지들의 과업을 지지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과정을 구성하는 생태학적 체계, 즉,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 가족과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자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그 안에서 아버지가 아이와 맺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곧바로 연구자의 분석에 따른 강점을 피드백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를 빠른 시간에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며, 대상자에게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여주었다. 아버지에게 프로그램과 연관된 피드백을 연구자가 직접 제공하는 과정은 평가적 사회적인 지지가 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져 성공적인 아버지됨을 지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아버지들의 영아발달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아버지가 급격하게 성장과 발달하는 시기의 영아를 이해하고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지식이 부족할 때 비현실적인 기대나 좌절감을 느끼면서 학대와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영아발달지식을 함양하는 아버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혹은 가정으로 확산된다면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며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들이 영아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아버지들은 부아 상호작용에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버지 측면, 영아 측면 양쪽 모두 다에서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의 아동과 아버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경옥 (2002). *영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및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강혜원(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권기남(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동교육, 21*(2), 5-20.

권미경(2012). 도서대여를 통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33-140.

권순임, 구수연 (2014).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아기 아버지 교육이 아버지 부모효능감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519-545.

김경화, 송승민 (2012). 영아반 굥사의 영아발달지식이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보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3), 357-368.

김근혜 (2019).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1-20.

김순옥, 이민아 (2006).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생활과학, 9,* 15-27.

김길숙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1.

김용익, 김낙홍 (2015). '아빠학교' 의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통해 겪은

삶의 경험 탐색, *한국육아지원학회, 10*(2), 191-215.

김은향, 고은영 (2019). 유아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효능감 및 스트레스에 따른 집단 분류 및 특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599-618.

김점희, 황재원 (2020). 상담자의 개입에 따른 반응성 애착장애 유아의 언어 및 놀이발달 변화과정 탐색: 그림책 읽어주기와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코칭연구, 13*(4), 49-75.

김정신(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정희 (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김주후, 곽승주, 전유영 (2017). 온라인 양육참여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경험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1*(2), 509-539.

김혜금(2011). 보육교사를 위한 웹기반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0(2),* 213-224.

박성연, 김상희, 김지신, 박응임, 전춘예, 임희수(2003).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박남심, 송승민, 엄희경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어머니-영아 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박신영, 이진희 (2013). 어린이집-가정 연계를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놀이신념 및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

연구, 8(1), 29-55.

박신진, 이영 (2011).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방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6), 67-83.

박현정, 김일옥(2016).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379-401.

방경숙 (2001).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간호학회, 7*(1), 21-34.

배정민, 김소향 (2016). 아버지의 놀이신념 및 훈육방식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5*(3), 23-49.

서동미 (2009). *모-아간 상호증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유아 애착안정성 및 어머니 민감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석원, 이대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서은영, 서현 (2018). 유아교육기관의 스마트 앱을 활용한 알림장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 *한국유아교육연구, 20*(2), 197-219.

서종옥, 곽승주 (2018). 스마트알림장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영아 어머니와 교사의 의사소통 탐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7*(2), 59-101.

신성숙 (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교육 현황 및 요구도 조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 (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73-191.

심성경, 변길희, 박주희, 박유미, 김은아(2007). 영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정확도. *육아지원연구. 2(2),* 43-58.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안혜선, 방경숙 (2014). 첫 아기 아버지에 대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산후 1 개월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4), 428-436.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2), 75-84.

오은순, 배진수 (2018). 영아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 수준과 지식형성 과정이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포괄영유아, 아동교육지원연구, 6*, 78-98.

오혜진, 도현심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2), 115-129.

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이경선 (2017).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 관련 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7(3),* 87-102.

이미화 (2015).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육아정책포럼, 45*, 19-28.

이미현, 최혜순 (2014).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

구 21(7), 307-330.

이서연 (2018).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아기 아버지교육이 양육참여도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울.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진달래, 이소현 (2019). 가정방문을 통한 어머니의 반응성 증진 교육이 발달지체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8*(1), 29-53.

최미란, 김현경 (2013). 아버지의 제왕절개 분만 참여 프로그램이 부아애착에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2), 75-87.

최윤주, 곽한영 (2015). SNS 를 활용한 사회과 블렌디드 러닝 모형 개발 연구. *교사교육연구, 54*(2), 273-286.

한규은 (2001). *모성 자존감 및 모성 민감성과 모아애착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현정환 (201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20.

홍순옥, 김성혜 (2008).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 상호작용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55-71.

홍창의 (2008).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황영미, 문혁준 (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2), 83-91.

Adamsons, K., & Johnson, S. K. (2013). An updated and expanded meta-analysis of nonresident fathering and chil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89.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The strange situation: Observing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y, 34*(1), 932.

Amato, P. R. (1987). Family processes in intact, one 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Alvarenga, P., Cerezo, M. Á., Wiese, E., & Piccinini, C. A. (2020). Effects of a short video feedback intervention on enhancing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5), 534-554.

Asdonk, S., Cyr, C., & Alink, L. (2020). Improving parent–child interactions in maltreating families with the Attachment Video-feedback Intervention: Parental childhood trauma as a moderator of treatment effect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1.

Bakers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Juffer, F. (2003). Less is more: meta-analyses of sensitivity and attachment interven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logical*

bulletin, 129(2), 195.

Bakers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Juffer, F. (2005). Less is more: From the Dodo Bird Verdic to Evidence-based Interventions on Sensitivity and Early Attachments. *Enhancing early attachments: Theory, research, intervention and policy, 297-312.*

Barnard, K. E., & Gortner, S. R. (1977). Results of the First Twelve Months of Life. Final Report. Nursing Child Assessment Project.

Barnard, K. E. (1984).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Springer, Berlin, Heidelberg.

Benzies, K., Magill-Evans, J., Harrison, M. J., MacPhail, S., & Kimak, C. (2008). Strengthening New Fathers' Skills in Interaction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Who Benefits From a Brief Intervention?. *Public Health Nursing, 25*(5), 431-439.

Bowlby, J. (1988).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A secure base. London, UK: Routledge.

Bronte-Tinkew, J., Carrano, J., Horowitz, A., & Kinukawa, A. (2008). Involvement among resident fathers and links to infant cognitive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9), 1211-1244.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3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

Bureau, J. F., Martin, J., Uurkoski, K., Schmiedel, S., Quan, J., Moss, E., & Pallanca, D. (2017). Correlates of child-father and child-mother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Attchment & Human Development, 19*(2), 130-150.

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208-213.

Caplan, & Caplan. (1980). The second twelve months of life: Your baby's growth month by month: Bantam.

Capuozzo, R. M., Sheppard, B. S., & Uba, G. (2010). Boot camp for new dads: The importance of infant-father attachment. *YC Young Children,* 65(3), 24.

Chiang, Y. C., Lin, D. C., Lee, C. Y., & Lee, M. C. (2015). Effects of parenting rol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n infant motor development in Taiwan Birth Cohort Study. Early human development, 91(4), 259-264.

Chung, F. F., Wan, G. H., Kuo, S. C., Lin, K. C., & Liu, H. E. (2018). Mother-infant interaction quality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t six months postpartum for first-time mothers in Taiwan: a multiple time series design.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8*(1), 365.

Costigan, C. L., & Cox, M. J. (2001).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research: Is there a self-selection bia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706.

Cowan, C. P., & Cowan, P. A. (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Crespi, I., Ruspini, E. (2015). Transition to fatherhood: new perspectives in the global context of changing men's identiti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5*(3), 353-358.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Del Vecchio, T., Walter, A., & O' Leary S., G., (2009). Affective and physiological factors predicting maternal response to infant crying.. *Infant Behavioral Development, 32,* 117-122.

Demir Öztü rk, E. (2018). Baba ve bebek etkileşim dü zeyleri. *Uluslararasi Sosyal Araştirmalar Dergisi, 11*(60), 716-722.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3,* 740-752

Egeland, B., & Fa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Erlandsson, K., Dsilna, A., Fagerberg, I., & Christensson, K. (2007). Skin-to-skin care with the father after cesarean birth and its effect on newborn crying and prefeeding behavior. *Birth, 34*(2), 105-114.

Fagan, J., & Kaufman, R., (2015). Co parenting relationships among low income, unmarried parents: Perspectives of fathers in fatherhood programs. *Family Court Review, 53*(2), 304-316.

Fagan. J. & Palm. G. (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Thomson Delmar Learning.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 399-406.

Flynn-Bowman, A. (2019). Increasing father involvement in the care of their infant using text messages: The DadRocks study.

Fuertes, Faria, Beeghly, & Lopes-dos-Santos.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sensitivity and involvement in caregiving o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attachment in a Portuguese samp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1), 147.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E. Lamb, A. L. Brown & B.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 pp. 193-242). Hillsdale, NJ :Erbaum.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96.

Graves, L. M., Ohlott, P. J., & Ruderman, M. N. (2007). Commitment to family roles: Effects on managers' attitude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44.

Greenberg, M., & Morris, N. (1974).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4*(4), 520.

Groeneveld, M. G., Vermeer, H. J., van IJzendoorn, M. H., & Linting, M. (2011). Enhancing home-based child care quality through video-feedback interven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1), 86.

Grossmann, K., & Grossmann, K. E., (2020). Essentials when studying child-father attachment: A fundamental view on safe haven and secure base phenomena.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1),* 9-14.

Helfenbaum-Kun, E., D., & Ortiz, C. (2007). Parenting-training groups for fathers of head start children: a pilot study of their feasibility and impact on child behavior and intra-familial relationship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2), 47-64.

Helmer, C. S., Thornberg, U. B., Frostell, A., Örtenstrand, A., & Mörelius, E. (2020). A Randomized Trial of Continuous Versus Intermittent Skin-to-Skin Contact After Premature Birth and the Effects on Mother–Infant Interaction. Advances in Neonatal Care, 20(3), E48-E56.

Helmerhorst, K. O., Riksen-Walraven, J. M. A., Fukkink, R. G., Tavecchio, L. W., & Deynoot-Schaub, M. J. G. (2017). Effects of the caregiver interaction profile training on caregiver–child interactions in Dutch child care cente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Child & youth care forum (Vol. 46, No. 3, pp. 413-436). Springer US.

Hoffman, M. L. (1960). Power assertion by the parent and its impac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129-143.

Hohmann-Marriott (2011).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in

married and unmarried coresid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296-309.

Huang, K. Y., Caughy, M. O. B., Genevro, J. L., & Miller, T. L. (2005).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quality of parenting among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moth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49-170.

Juffer, F. E.,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8). Promoting positive parenting: An attachment-based intervention. Taylor & Francis Group/Lawrence Erlbaum Associates.

Kerr, D. C., Lunkenheimer, E. S., & Olson, S. L. (2007). Assessment of child problem behaviors by multiple informants: A longitudinal study from preschool to school ent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10), 967-975.

Knoester, C., & Eggebeen, D. J. (2006).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subsequent children on men' s well-being and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1), 1532-1560.

Kok, M., Komen, A., van Capelleveen, L., & van der Kamp, J. (2020). The effects of self-controlled video feedback on motor learning and self-efficacy in a Physical Education setti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hot-pu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5(1), 49-66.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rental behavio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25*, 883-894.

Lamb, M. E., Frodi, A. M., Frodi, M., & Hwang, C. P. (1982). Characteristic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5*, 131-141.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1-26.

Levine, J. A., & Pitt, E. W. (1995). New expectations: Community strategies for responsible fatherhood. Families and Work Institute, New York.,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Lau, R., & Hutchinson, A. (2020). A narrative review of parental education in preparing expectant and new fathers for early parental skills. *Midwifery, 84,* 102644.

Lawrence, P. J., Davies, B., & Ramchandani, P. G. (2013). Using video feedback to improve early father–infant interaction: A pilot study.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8*(1), 61-71.

Lucassen, N., Tharner, A.,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Volling, B. L., Verhulst, F. C., & Tiemeier, H.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p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father attachment security: A meta-analysis of three decades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6), 986.

McAllister, F., & Burgess, A. (2012). Fatherhood: Parenting Programmes and Policy. Fatherhood Institute.

Magill-Evans, J., Harrison, M. J., Rempel, G., & Slater, L. (2006). Interventions with fathers of young childre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5*(2), 248-264.

Magill-Evans, J., Harrison, M. J., Benzies, K., Gierl, M., & Kimak, C. (2007).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on First-Time Fathers' Skills in Interactions with Their Infants.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5*(1).

MacPhee, D. (1981). Manu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May, K. A. (1982). Factors contributing to first-time fathers' readiness for fatherhood: An exploratory study. Family Relations, 353-361.

McMillin, S., E., Bultas, M., W., Zander, T., Wilmott, J., Underwood, S., et al. (2015). The role of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 predicting risk for child maltreatment. *Clinical Pediatrics,* 55(4), 374-376.

Meuwissen, A. S., & Carlson, S. M. (2015). Fathers matter: The role of father parenting in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0*, 1-15.

Muller, M. E. (1994). A questionnaire to measure mother-to-infant attachment.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2*, 129-141.

Murphy, N. (2011).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Neurology, 26, 1054-1056.

Nordahl, K. B. (2014). Early father-child interaction in a father-friendly context. Gender differences, child outcomes, and predictive factors related to fathers' parenting behaviors with one-year-old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ergen, Norway.

Northrup, J. B., & Iverson, J. M. (2020). The development of mother–infant coordination across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56*(2), 221.

Notaro, P. C., & Volling, B. L. (1999).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parent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with fathers an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 345–352.

Palkovitz, R., Copes, M. A., & Woolfolk, T. N. (2001). "It's Like... You Discover a New Sense of Being" Involved Fathering as an Evoker of Adult Development. *Men and masculinities, 4*(1), 49-69.

Panter-Brick, C., & Leckman, J., F. (2013). Editorial commentary: resilience in child development-interconnected pathways to wellbe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4), 333-336.

Parke, R.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e-Hall. New Jersey.

Pleck, J. H. (2010). Fatherhood and masculinity.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 27-57.

Petch, J., & Halford, W. K. (2008). Psycho-education to enhance couples′ transition to parenthood.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125-1137.

Pinquart, M., & Teubert, D. (2010).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with expectant and new par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316.

Potts, N., L., & Mandelco, B., H.(2007). Pediatric Nursing(2nd ed.). Thomson Learning.

Reamer, R. B., Brady, M. P., & Hawkins, J. (1998). The effects of video self-modeling on parents′ interactions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31-143.

Rempel, L. A., Rempel, J. K., Khuc, T. N., & Vui, L. T. (2017). Influence of father–infant relationship on infant development: A father-involvement intervention in Vietnam. *Developmental psychology, 53*(10), 1844.

Tamis-LeMonda, C., Shannon, J. D., & Spellman, M. (2002).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knowledge about domains of child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 88-103.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Tryphonopoulos, P. D., & Letourneau, N. (2020). Promising Results From a Video-Feedback Interaction Guidance Intervention for Improving Maternal–Infant Interaction Quality of Depressed

Mothers: A Feasibility Pilot Study.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52*(2), 74-87.

Schoemaker, N. K., Juffer, F., Rippe, R. C., Vermeer, H. J., Stoltenborgh, M., Jagersma, G. J., & Alink, L. R. (2020). Positive parenting in foster care: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a video-feedback intervention program on foster parents' behavior and attitud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0.

Shaffer, D. D.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 dolescence (3rd Ed.). Brooks Cole. California.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Shorey, S., Dennis C. L., Bridge S., Chong Y. S., Holroyd, E., & He, H. G. (2017). First-time fathers' postnatal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3*(12), 2987-2996.

Stepanyan, S. T., Natsuaki, M. N., Cheong, Y., Hastings, P. D., Zahn-Waxler, C., & Klimes-Dougan, B. (2020). Early pubertal matur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s: Examination of peer delinquency as mediator and cognitive flexibility as a moderator. *Journal of Adolescence, 84*, 45-55.

Tagavi, D., Koegel, L., Koegel, R., & Vernon, T. (2020). Improving Conversational Fluidity in Young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Using a Video-Feedback Intervention.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12.

Taskin, N., & Erkan, S. (2009). The influence of father education programs on the levels of fa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An experimental study. *H. U. Journal of Education, 37*, 136-148.

Vermeer, H. J., & Bakermans-Kranenburg, M. J. (2008). Attachment to mother and nonmaternal care: Bridging the gap.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3), 263-273.

Vogel, C., A., Xue, Y., Moidudiin, E., M., Kisker, E., E., & Carlson, B., L. (2011). Early Head Start Children in Grade 5: Long-term Follow-up of the Early Head Strat research and evaluation project study sample. Washington, DC: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terston, T., Welsh, B., Keane, B., Cook, M., Hammal, D., Parker, L., & McConachie, H. (2009). Improving early relationship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n age-paced parenting newsletter. *Pediatrics, 123*(1), 241-247.

Wolfson, A., Lacks, P., & Futterman, A. (1992). Effects of parent training on infant sleeping patterns, parents' stress, and perceived parental compet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1), 41.

Yogman, M. W. (1982). Development of father-infant relationship,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1, Plenum Press, 221-263.

Yogman, M. W. Kindlon, D., & Earls, F.(1995).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behavioral outcomes of preterm infa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58-66.

Zand, D. H., Braddock, B., Baig, W., Deasy, J & Maxim, R. (2013). Role of pediatricians in fostering resilienc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Pediatrics, 163*, 1769-1771.

부록 A.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영아 건강발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책임자명 : 박세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아기 아버지가 되셔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연구과정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 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들을 위한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자녀의 연령이 만 8주-24주인 아버지 34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약 20분 정도 걸리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 등에 대한 것입니다.
2) 설문조사 후 귀하의 가정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귀하와 아동의 놀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이 과정은 5주 후 한 번 더 반복되어 총 2번의 설문조사와 총 2번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녹화영상은 연구종료 시점인 2021년 6월 폐기됩니다. 이 연구에서 설문지와 영상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프로그램의 진행되는 약 1개월 사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 각각 사전, 사후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가정방문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참여 의사 철회와 동시에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사전·사후 검사의 경우 인터넷 창을 닫으시면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가정방문을 통한 신종코로나 19 전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30분 이내),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가정방문을 하기 전 모든 가족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발열을 확인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감염예방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를 통해 미래에 영아기 아동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참여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세은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가정방문과 온라인 교육을 위해 수집되며, 연구기간인 2020년 6월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암호화한 파일로 별도의 이동식저장장치 에 저장하여 연구책임자인 박세은과 연구자 방경숙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 며, 연구자의 개인 PC에서만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외의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 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시행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가 1차 설문조사, 1차 가정방문, 2차 설문조사, 2차 가정방문에 참여할 때 감사의 뜻으로 각각 해당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세은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영아 건강발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책임자명 : 박세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아기 아버지가 되셔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연구과정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 담당 연구원에게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 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첫 아기 아버지들을 위한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첫 자녀의 연령이 만 8주-24주인 아버지 34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약 20분 정도 걸리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지식, 부아애착 등에 대한 것입니다.
2) 1차 교육 시 귀하의 가정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귀하와 아동의 놀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이 과정은 5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총 2번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녹화영상은 연구종료시점인 2021년 6월 폐기됩니다. 이 연구에서 설문지와 영상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진행: 사전검사 날을 포함하여 5주 동안 1주일에 1회씩 영아건강발달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총 60의 강의와 개별상담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대상자의 요구와 아기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5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후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회차	회차별 주제	활동
1	**아기와 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아기의 신호 아기를 둘러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교육
2	**아기의 하루**	동영상 촬영 분석 결과 개별 피드백 놀이의 순환구조(teaching loop) 영아의 하루와 리듬 파악하기(24시간과 울음)
3	**영아기 건강발달1**	영아의 성장과 발달_3개월 ~ 8개월 응급상황대처
4	**영아기 건강발달2**	영아의 성장과 발달_9개월 ~ 12개월 예방접종 및 지역사회자원의 이용
5	**아버지 효과**	미래에 꿈꾸는 아빠와 아이와의 관계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중에 5주 동안 일주일에 1번 60분씩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에는 사전, 사후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참여 의사 철회와 동시에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온라인 사전·사후검사의 경우 인터넷 창을 닫으시면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가정방문을 통한 신종코로나 19 전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30분 이내),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가정방문을 하기 전 모든 가족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발열을 확인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감염예방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를 통해 아버지들은 영아와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아애착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발달에 대한 예측적 안내를 받아 아동발달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 이 연구가 미래에 영아기 아동 건강을 위한 효과적

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참여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세은 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집주소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가정방문과 온라인 교육을 위해 수집되며, 연구기간인 2020년 6월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암호화한 파일로 별도의 이동식저장장치 에 저장하여 연구책임자인 박세은과 연구자 방경숙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 며, 연구자의 개인 PC에서만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외의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 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그러나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시행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 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가 1차 설문조사, 1차 가정방문, 2차 설문조사, 2차 가정방문에 참여할 때 감사의 뜻으로 각각 해당하는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세은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동 의 서(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영아 건강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책임자명 : 박세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숙지하였습니다.
3.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나와 자녀의 상호 작용을 녹화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는 나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집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모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박세은	서 명	날짜 (년/월/일)

동 의 서(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영아 건강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책임자명 : 박세은(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숙지하였습니다.
3.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는 나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집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모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박세은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 B. 연구 참여자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아버지들의 변화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후에 실행될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아발달지식' 항목 외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결과는 암호화된 파일에 보관되어 연구결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로서 비밀보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연구참여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으며,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 의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세은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방경숙 교수,

<사전 설문지>

1. 첫 자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자녀의 출생 시 체중은? ( )kg
3. 출생 시 임신주수는? ( )주
4. 자녀에게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본인이나 아기엄마에게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평소) 아기의 양육을 도와주거나 혹은 가정살림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본인이나 아기엄마가 한국국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이전에 육아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예, 산전교육)? ① 예 ② 아니오
9. 아기엄마와의 관계가 원만한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현재 자녀의 연령은? 출생 후 ( )주

2.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아버지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세

4.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학중퇴 혹은 졸업
④ 대학원

5. 가족 전체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⑥ 7000만원 이상 1억 미만
⑦ 1억 이상

<사전/사후 설문지>

☞ 영아발달지식 측정도구

⊙ 다음은 영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O 해주세요.

문항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대부분의 아기들은 8개월이 되면 앉을 수 있다.	1	2	3
2. 6개월 된 아기는 상대방의 감정 즉 기쁜지, 슬픈지, 당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1	2	3
3. 2살 된 대부분의 아기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1	2	3
4. 아기들은 12개월이 되면 걸을 수 있다.	1	2	3
5. 8개월 된 아기는 낯선 사람과 친숙한 사람에게 달리 반응한다.	1	2	3
6. 7개월 된 아기는 사물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기도 한다.	1	2	3
7. 2살 된 아기는 어른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2	3
8. 한 살 된 아기는 '옳은 것' 과 '그런 것' 을 안다.	1	2	3
9. 3개월 된 아기는 종종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한다.	1	2	3
10. 대부분의 아기는 1살이 되면 배변훈련을 할 수 있다.	1	2	3

11. 아기들은 10개월이 되면 자신의 이름에 대답하기 시작한다.	1	2	3
12. 아기는 4개월 정도가 되면 크게 웃기 시작한다.	1	2	3
13. 5개월 된 아기는 '아니오'의 의미를 안다.	1	2	3
14. 4개월 된 아기는 엎드렸을 때 자기 머리를 들 수 있다.	1	2	3
15. 옹알이는 5개월 정도에 시작한다.	1	2	3
16. 한 살 된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협동하면서 논다.	1	2	3
17. 한 살 된 아기는 보는 앞에서 장난감을 숨기면 찾는다.	1	2	3
18. 아기가 보통 6개월이 되면 처음으로 진짜 말은 한다.	1	2	3
19. 6개월 된 아기들은 높은 장소에 앉히면 그것을 아는 '깊이 개념'이 있다.	1	2	3

☞ 상호반응적 교수척도

⊙ 다음은 연구자(간호사)가 직접관찰과 녹화된 영상을 관찰하여 체크합니다.

NCAST TEACHING SCALE 0~3세용

		부모님 정보 국적 및 인종 결혼상태□결혼□미혼□이혼□별거
관찰된 사람__나이__학력 □어머니 □아버지 □기타_____ 위 분은 주 양육자?□예□아니오 함께 놀이한 시간(분) 1 또는 비만 2 3 4 5 6 또는 그 이상	장소 □집□연구실□기타___ 다른사람이 있었나요? □예□아니오 만약 계셨다면?_____	아동이름____ 나이(월령)_____ 성별____ 출생순위 1 2 3 4 5 또는 이상 영아의 놀이시작할 때의 상태 □완전히잠듬□활동성있는 잠 □조는 상태□완전히 깬 상태 □활동중인상태□우는상태

1. 신호에 대한 민감성	예	아니오
1. 양육자는 아동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양육자는 놀이 과제들을 아동의 손이 닿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둔다.		
3.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4. 양육자는 아동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만 지시를 준다(관찰시간 중 90%).		
5. 양육자는 놀이 과제에 대한 지시를 주기 전에 아동이 최소한 5초 이상 놀이 과제물을 탐색하도록 허용한다.		
6.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동안 대부분 아동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60%).		
7.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이 어떤 행동을 시도하면 잠시 멈춘다.		
8. 양육자는 아동이 놀이 과제 수행을 성공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한다.		
9. 양육자는 아동이 놀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3회 이상의 수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양육자는 아동의 놀이 과제 수행이 성공적으로 시도되지 못했을 때 아동 또는 놀이 과제물의 위치를 변경한다.		
11. 양육자는 아동이 놀이 과제를 완성하도록 신체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예' 로 응답한 합계		

2. 아동이 보챌 때의 반응

예( ) 아니오( ) (상호작용을 중단하고 싶은 신호가 관찰될 때)

	예	아니오
12.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활동을 중단한다.		
13. 양육자는 긍정적, 공감적, 달래는 어투를 사용한다.		
14. 양육자는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소리 크기를 속삭이거나 높이거나 한다.		
15. 양육자는 아동의 위치나 놀이과제물의 위치를 재배열한다.		
16. 양육자는 부드러운 몸짓으로 반응한다. (예. 쓰다듬기, 만져주기, 흔들어주기, 뽀뵤해주기 등)		
17. 양육자는 게임을 함께하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소개함으로써 아동의 주위를 환기시킨다.		
18. 양육자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언어사용을 하지 않는다.		
19. 양육자는 아동에게 소리지르지 않는다.		
20. 양육자는 아동에게 돌발적인 행도을 하거나 거칠게 다루지 않는다.		
21. 양육자는 아동을 찰싹 때리거나 치지 않는다.		
22. 양육자는 가정 방문자에게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예'로 응답한 합계		

3. 사회-정서적 성장 촉진 양육행동

23. 양육자는 아동과의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90%).		
24.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동안 마주보는(면-대-면) 자세를 취하고 있다(60%).		
25.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에게 웃거나 미소를 짓는다.		
26.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을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입맞춰 준다.		
27. 양육자는 아동이 미소 짓거나 소리를 내거나 말할 경우 5초 이내에 미소 짓거나 어루 만져준다.		
28.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의 노력이나 행동에 대해 적어도 한 번 이상 일반적인 칭찬을 한다.		
29.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을 북돋아 주는 언어표현을 한다.		
30. 양육자는 아동이 소리를 낼 때 동시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		
31. 양육자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32.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소리 지르지 않는다.		
33. 양육자는 아동의 놀이 과제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다.		
'예' 로 응답한 합계		

4. 인지적 성장 촉진 양육 행동

34.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아동이 형제자매, 애완동물, 타인, TV 등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직접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35.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자신도 과제에 집중하고 아동 역시 집중하도록 한다(60%).		
36. 양육자는 어떤 지시를 준 후에 아동이 스스로 최소한 과제를 5초 이상 탐색한 후에 개입한다.		
37. 양육자는 놀이 과제물을 제시한 후에 아동이 과제 수행 이외의 방법으로 장난감을 조작하는 것을 허락한다.		
38. 양육자는 아동에게 놀이 과제물의 지각적 특징에 대하여 묘사한다.		
39. 양육자는 아동에게 놀이 과제에 대한 설명을 최소한 서로 다른 두 어구 또는 두 문장으로 한다.		
40. 양육자는 아동과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명령적 표현 보다는 탐색적 표현으로 이야기 한다.		
41. 양육자는 지시를 모호한 표현이 아닌 명확한 표현으로 한다.		
42. 양육자는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언어적 설명과 시범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		
43. 양육자는 아동의 놀이과제물 사용을 강요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아동이 직접 놀이과제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격려한다.		
44. 양육자는 아동이 이전 놀이과제 수행보다 더 잘하거나 성공적으로 많이 수행한 경우 언어적 칭찬을 한다.		
45. 양육자는 아동이 이전 놀이과제 수행보다 더 잘하거나 성공적으로 많이 수행한 경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46. 양육자는 아동이 소리를 낼 때 언어적으로 반응한다.		
47. 양육자는 아동과 놀이과제 상호작용 중 언어적 비언어적 지시를 모두 사용한다.		
48. 양육자는 최소한 한 번 이상 teaching loop를 사용한다.		
49. 양육자는 아동이 과제를 완성했을 때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낸다.		
50. 양육자는 아동과 놀이 과제 상호작용을 실시할 때 1분 이하로 하거나 5분 이상하지 않는다.		
'예' 로 응답한 합계		

5. 신호의 명확성

51. 아동이 깨어있다.		
52. 아동이 눈을 크게 뜨거나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취한다.		
53. 아동이 놀이 과제물이 제시되었을 때 움직임 또는 집중도가 변화된다.		
54. 아동은 명확히 놀이 과제나 놀이 과제물을 향해 움직이거나 이에서 멀어진다.		
55. 아동이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에 손뼉을 치거나, 잡거나, 가리키기 등의 명확한 팔 움직임이 있다.		
56. 아동이 놀이 과제물을 보면서 소리를 낸다.		
57. 아동이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웃거나 미소 짓는다.		
58. 아동이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이마를 찌푸리거나 입을 굳게 다문다.		
59. 아동이 놀이 과세 상호작용 중 중단하고 싶은 신호를 강하게 표현한다.		
60. 아동이 놀이 과제 상호작용 중 중단하고 싶은 신호를 약하게 표현한다.		
'예'로 응답한 합계		

6. 양육자에 대한 반응성

61. 아동은 양육자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행동을 할 때 양육자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놀이 과제물을 쳐다본다.		
62. 아동은 양육자와 눈 맞춤을 시도한다.		
63. 양육자가 눈 맞춤을 하고자 할 때 아동을 양육자의 얼굴이나 눈을 쳐다본다.		
64. 아동은 양육자가 말을 하면 5초 이내에 소리를 내거나 옹알거린다.		
65. 아동은 양육자의 몸짓, 접촉, 표정변화가 나타나면 5초 이내에 소리를 내거나 옹알거린다.		
66. 아동은 양육자가 말을 하면 5초 이내에 미소 짓는다.		
67. 아동은 양육자의 몸짓, 접촉, 표정변화가 나타나면 5초 이내에 미소 짓는다.		
68. 양육자가 아동 얼굴과의 거리를 8inch (약 20cm) 이내로 할 경우 아동이 강하거나 약한 상호작용 중단 신로를 보낸다.		
69. 아동은 양육자가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거나, 얼굴 표정이 바뀌면 5초 이내에 강하거나 약한 상호작용 중단 신호를 보낸다.		

70. 아동은 양육자가 말을 하면 5초 이내에 강하거나 약한 상호작용 중단 신호를 보낸다.		
71. 아동은 양육자가 과제물 사용을 신체적으로 강요할 때 강하거나 약한 상호 작용 중단 신호를 보낸다.		
72. 아동은 양육자가 과제물 사용을 신체적으로 강요할 때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거나 공격적 반응을 보인다.		
73. 아동은 양육자가 부드럽게 달래 주면 15초 이내에 상호작용 중단 신호를 그친다.		
'예' 로 응답한 합계		

	하위영역		일치성	
	문항수	예응답수	문항수	예응답수
신호에 대한 민감성	11		5	
아동이 보챌 때 반응	11		6	
사회-정서성장촉진행동	11		3	
인지적성장촉진양육행동	17		6	
양육자 합계	50		20	
신호의 명확성	10		0	
양육자에 대한 반응성	13		12	
아동합계	23		12	
양육자/아동 합계	73		32	

과제놀이 중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신호들

□등을 젖히기□숨막히는 것□고개돌리기□울상짓기□울기□기침□코풀기□야단법석떨기□싫어하는 것 손으로 정지시키기□옆으로 고개 흔들기□완전히 뜬데보기□손들고 두드리는 듯한 동작□소란스럽게 하기□딴곳쳐다보기□창백하거나 얼굴이 빨개질 때 □고개를 양육자나 과제로부터 뒤로 젖히기□과제흐트리기□ '싫어', '안해' 등으로 말하기□딴 곳으로 걸어가기□이상한소리지르기□잠에빠져들기□그이외의 중단신호_____

어머니의 국적 및 인종에 관한 정보/비고

관찰일시:
관찰자명:

☞ 부아애착 측정도구

⊙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O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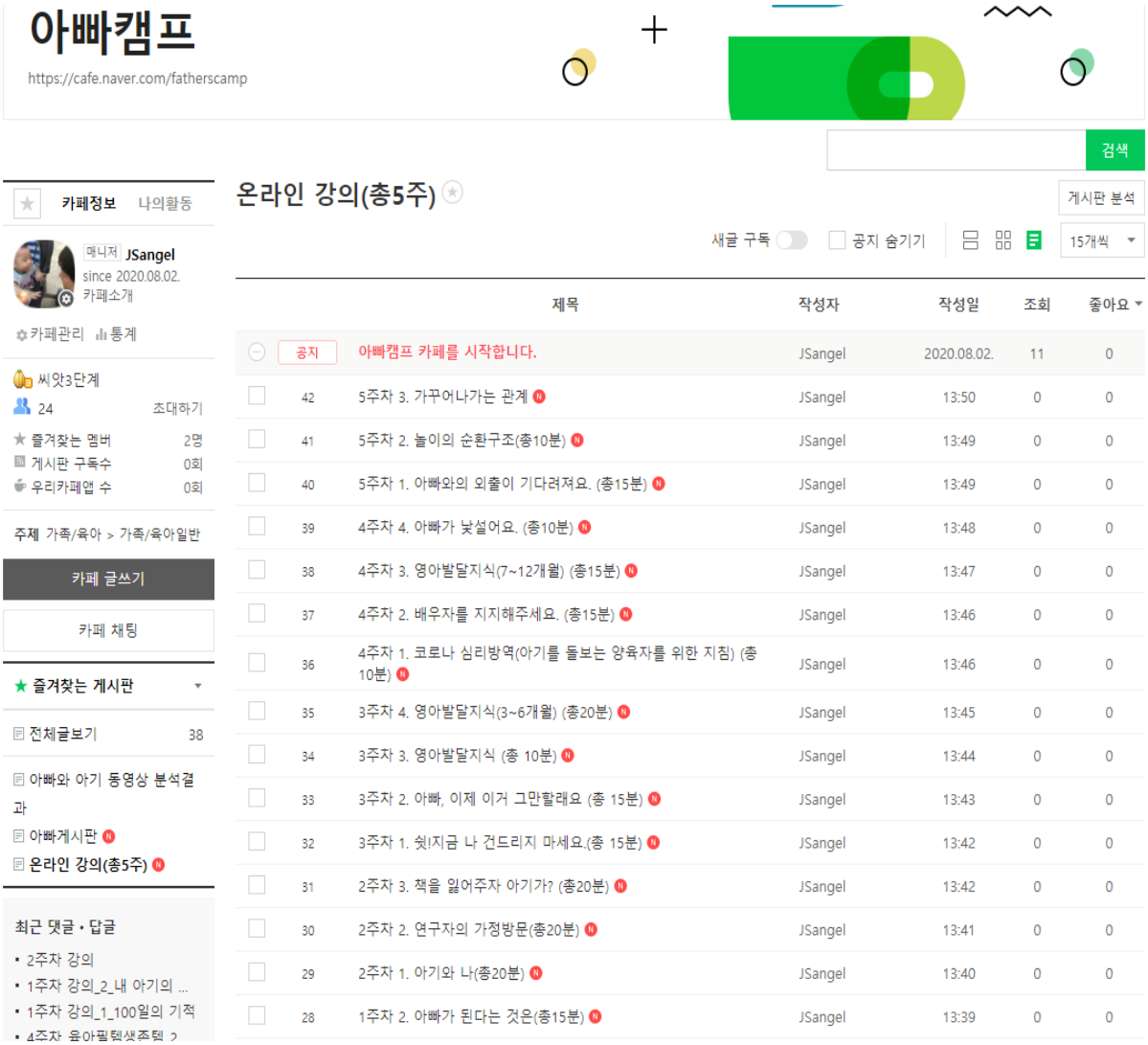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아기에게 사랑을 느낀다.	1	2	3	4
2	나는 내 아기와 함께 있으면 포근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1	2	3	4
3	나는 내 아기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	2	3	4
4	나는 내 아기와 함께 하길 기대한다.	1	2	3	4
5	나는 내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1	2	3	4
6	나는 내 아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7	나는 내 아기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나는 이 아기가 내 자식이란 사실이 기쁘다.	1	2	3	4
9	나는 내 아기가 웃을 때에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10	나는 내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길 좋아한다.	1	2	3	4
11	나는 내 아기를 안아주는 걸 좋아한다.	1	2	3	4
12	나는 내 아기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곤 한다.	1	2	3	4

13	나는 내 아기가 내 곁에 가까이 있길 원한다.	1	2	3	4
14	나는 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	1	2	3	4
15	나는 내 아기와 함께 있는게 즐겁다.	1	2	3	4
16	나는 내 아기와 꼭 껴안는걸 즐긴다.	1	2	3	4
17	나는 내 아기가 자랑스럽다.	1	2	3	4
18	나는 내 아기가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걸 보는게 즐겁다.	1	2	3	4
19	나는 온통 내 아기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1	2	3	4
20	나는 내 아기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21	나는 내 아기가 나를 믿어주기를 원한다.	1	2	3	4
22	나는 나 자신이 내 아기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1	2	3	4
23	나는 내 아기의 신호를 잘 이해한다.	1	2	3	4
24	나는 내 아기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25	나는 내 아기가 울 때에 잘 달래준다.	1	2	3	4
26	내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부록 C. 연구 참여자 모집글

부록 D. 온라인 아버지 커뮤니티 및 강의안



1주차 강의 (총 30분)

1. 아가야,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총 15분)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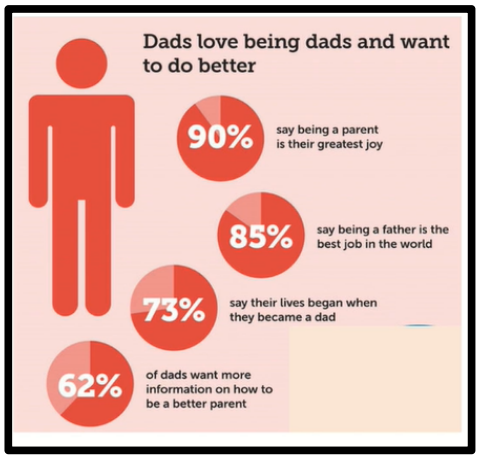
아버지들은 더욱 잘 하고 싶어한다(Zero to three Survey in USA)

①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다(90%).

② 아버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다(85%).

③ 아버지가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73%).

④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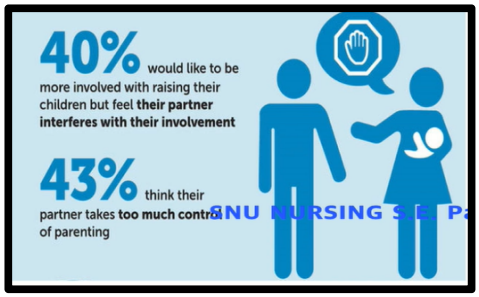


2. 아빠가 된다는 것은...(총 15분)

- 영아돌봄에 있어 이차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픈 아버지들의 욕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한다(Zero to three Survey in USA).

① 아버지들은 양육에 더욱 참여하고 싶지만 배우자에 의해 제한되는 느낌을 받는다(40%).

② 부모역할을 할 때 배우자에 의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생각한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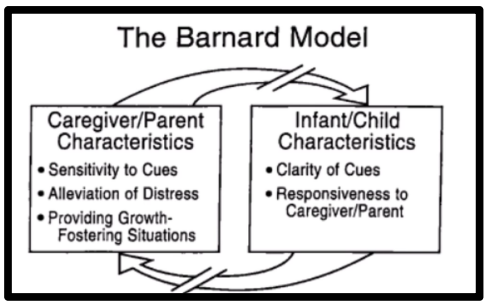
2주차 강의 (총 60분)

1. 아기와 나 (총 20분)

-부아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는 Barnard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① 아버지가 민감성 있게 신호에 반응하고, 아기의 Distress를 경감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아기도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연결의 고리가 이어져야 한다.



2. 연구자의 가정방문 (총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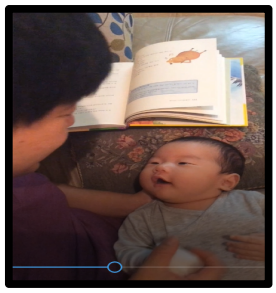
가정방문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데, 해석한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을 NCAST지침에 근거를 두어 설명한다.

① 돌봄제공자 측면- 신호에 대한 민감성,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사회정서적 발달 조성, 인지발달조성

② 아기 측면-신호의 명확성, 돌봄제공자에 대한 반응성

3. 책을 읽어주자 아기가? (총 20분)

예시가 되는 영상을 함께 분석해본다(강의에 삽입된 모든 사진과 영상은 연구책임자 가족)



① 얼굴을 마주보는 눈맞춤이 가능한 자세

② 아기의 아버지를 향한 눈맞춤

③ 아기의 옹알이에 아버지가 반응하는 장면

④ 아기의 미소와 아버지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

⑤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⑥ 사회정서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⑦ 아기의 상태와 신호 등

3주차 강의 (총 60분)

1. 쉿! 지금 나 건드리지 마세요. (총 15분)
- 아기의 6가지 상태와 상태변화를 돕는 전략들

2. 아빠, 이제 이거 그만할래요~ (총 15분)
아기의 관여신호(engagement cue)와 비관여신호(disengagement cue)

3. 영아발달지식(총 10분)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이유

-올바른 양육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구사하여 자녀에게 맞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Goodnow, 1988; Tamis-LeMonda, Shannon, & Spellaman, 2002).

-특히 어린 영아일수록 발달단계에 따른 영아의 욕구가 다르므로 양육자가 영아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양미선, 조복희, 2009)

-양육지식이 부족할 때 부모는 부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비현실적인 기대 즉, 지나치게 빠른 발달 혹은 늦은 발달을 자녀에게 기대하여, 현실과 기대의 불일치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Grusec & Goodnow, 1994).

-이러한 스트레스는 방임, 훈계, 극단적으로 아동학대까지 야기할 수 있다(Huang, Caughy, Genevro, & Miller, 2005).

4. 영아발달지식(3~6개월) (총 20분)

* 팔로 지지하여 고개와 상체를 들기(4개월)

*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뒤집기(4개월)-> 바로 뒤집은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로 뒤집기(5개월)

* 물건을 향해 손을 뻗어 입으로 가져가기(2~5개월)

* 신경발달이 완성되기 전에 앉거나, 기기 전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3~6개월)

* 보통 4-6개월 시기에는 뒤집기, 눈과 손의 협응력이 생기고 옹알이를 시작하며, 애착관계가 형성되며, 웃음과 울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10).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 수면, 휴식, 적절한 환경과 생활습관, 정서적 안정, 질병의 조기 발견, 정기 건강검진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전남련 등, 2010).

*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후 4개월의 검진 시 수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복지부, 2012).

*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4주차 강의 (총 60분)

1. 코로나 19 심리방역(아기를 돌보는 양육자를 위한 지침) (총 10분)

2. 배우자를 지지해주세요. (총 15분)
- 사회교환이론에 바탕을 둔 배우자 지지의 이해

3. 영아발달지식(7~12개월) (총 15분)
-7-9개월에는 앉고 기기가 가능하며, 간단한 소리 따라하기가 가능하며,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10-12개월은 기구를 잡고 걸음마가 가능한 시기이며, 대상 영속성, 기억력, 호기심이 발달한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10).

4. 아빠를 무서워해요(사례). (총 10분)
낯가림으로 인해 부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
-낯선 사람이 생후 4~6개월 된 아기를 처음 접하는 경우 절대로 먼저 다가서서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다.
-아기와 최소한 20~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새로운 장난감이나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고 소리를 내면서 아기가 긴장감을 풀 때까지 기다린다.
-웃는 표정을 짓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아기가 낯선 사람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긴장을 많이 하는 아기의 경우 1~2m 정도 거리를 두면서 아기 엄마와 먼저 대화하고 아기와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아기가 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아기가 긴장을 풀고 낯선 사람이 건네는 장난가믈 손을 뻗어서 잡으면, 그때 아기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게 좋다.

5주차 강의 (총 30분)

1. 아빠와의 외출이 기다려져요. (총 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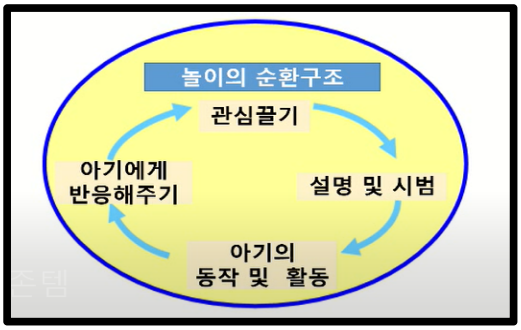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 수면, 휴식, 적절한 환경과 생활습관, 정서적 안정, 질병의 조기 발견, 정기 건강검진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전남련 등, 2010).

예방접종은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하나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아기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 기능 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의 기초가 되므로(김수강, 2007),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행위가 영아기 건강 관리에서 중요하다(하영혜, 2012).

-영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아가 시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지 점검하고, 부모에게 영아의 영양, 수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영아기에는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총 2번 시행된다.

2. 놀이의 순환구조 (총 10분)



- 과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3. 가꾸어나가는 관계

- 아버지가 만들어 나가고자하 자녀와의 관계를 말해 본다.

부록 E. 과제: 블럭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기*

8월 일 오전 시 분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아동건강간호학 박사과정 박세은

촬영시간: 총 5분
아기의 상태:Quiet Alert

아기는 과제 중 집중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신호와 상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학습과정 중 아버님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눈과 얼굴이 놀잇감을 향했으며, 팔과 몸통의 움직임이 조화로웠습니다. 아기는 전반적으로 블록과 돼지인형을 쳐다보면서 관여신호(engagement)를 보였고, 4분 19초에 하품, 뒤로 몸을 뻗치는 행동으로 비관여신호(disengagement)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아기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놀이학습과정은 주의집중(alert)->과제제시(instruction)->수행(performance)->피드백(feedback)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정 전반에 걸쳐 아버님께서 아기에게 보여주신 애정어린 말투와 따뜻한 스킨십은 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기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상호작용에서는 설명적인(explanatory verbal style)이 권장됩니다.

자세는 아기가 몸통을 돌리거나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급적이면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가 권장됩니다. 아버님께서 아기의 자세와 집중도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며 학습을 시도하셨는데 이는 매우 탁월한 시도였습니다. 다만, 4분 19초에 아기가 하품하는 장면을 아버님께서 마주보는 자세였다면 아기의 비관여 신호로 해석하셨을 텐데, 뒤에서 지지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4분 30초에 아기가 몸을 버팅길 때까지(Distress) 알아채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촬영에서 아기의 큰 스트레스 상황은 없었으나, 만약 아기가 Distress 상황에서 비관여 신호를 보일 때는 달래어 주어 놀이를 진행하거나, 놀이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아버님께서 아기가 과제를 수행하도록 자연스럽게 놀이과정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아기가 블록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시고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 점은 모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제제시 단계에서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기의 손에 부드럽게 블록을 쥐어주면서 학습을 리드하시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만약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면서 직접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나무 블록이 하나 있네.” “핑크색 작고 귀여운 아기 돼지가 한 마리 있네. 누르면 이렇게 삑 소리도 나.” 이렇게 놀잇감의 특성을 말로써 설명하여 주의를 집중시킨 후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기의 손에서 아빠의 손으로 블록을 옮기도록 유도하면서 ‘패스’라고 하셨는데, 시연과

동시에 말로 설명하는 방법도 시도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블록을 옮겨보이시면서 “블록이 아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움직였지. 이번에는 우리 아가가 한 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과제를 구체적인 말로써 설명하면서 아기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동시에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여기’, ‘이거’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자제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활용해주세요. 아버님께서 아기에게 ‘할 수 있어’라며 과정을 격려해주시고, ‘잘했다, 아까보다 더 잘하네’라고 결과를 로써 칭찬해주시는 것이 아기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제시된 과제가 달성되었는지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아기의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노력 역시 “할 수 있음, 발전 중임”을 강조하여 아낌없이 격려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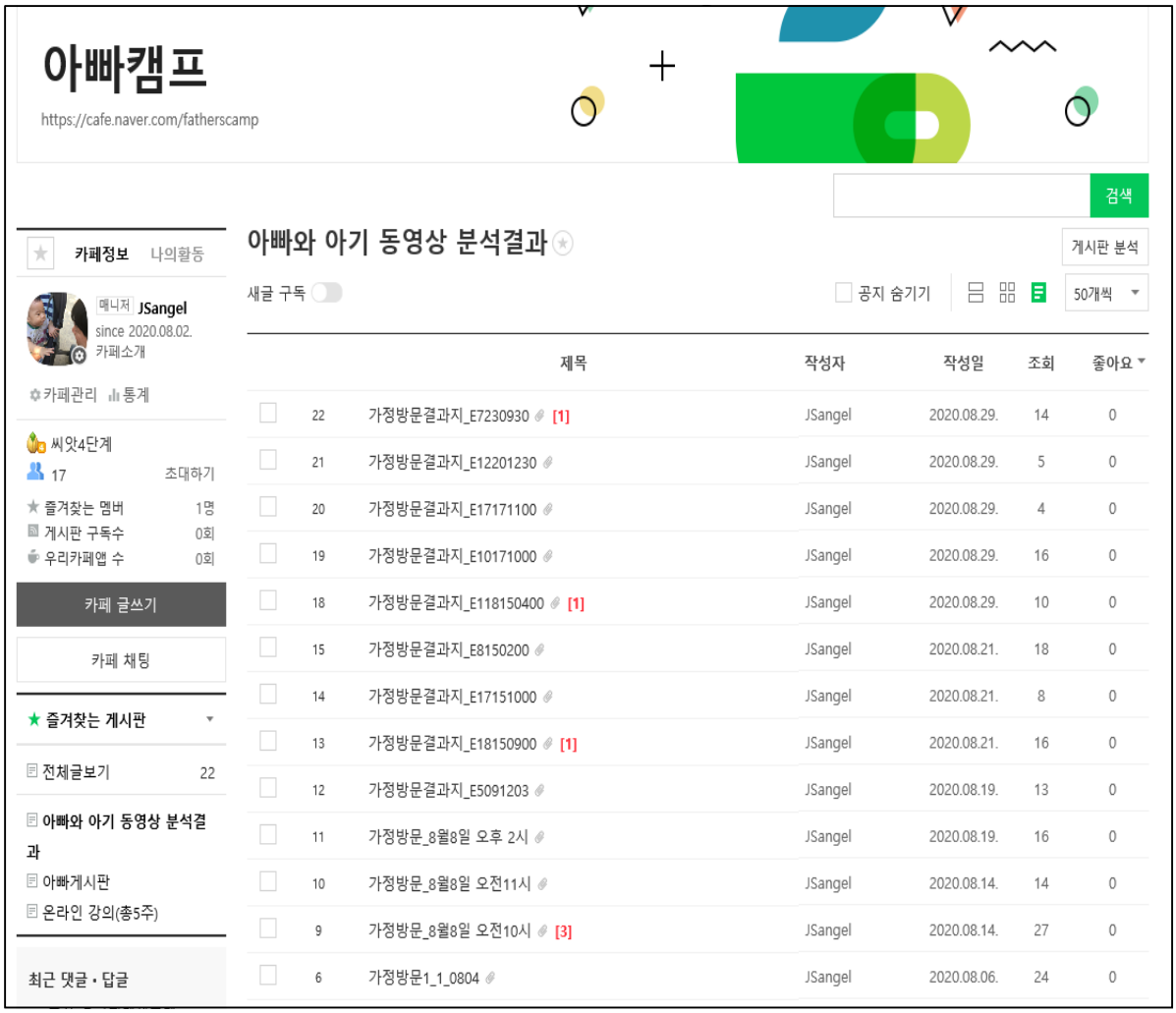
아버님께서 아기를 토닥이고, 웃고, 반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놀이학습활동은 아기의 사회정서,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지만, 아버님께서 아기와 더 많이 교감하고 아기의 신호와 반응에 대해서 알아가시도록 민감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졸리운 아기를 깨우기 위해 배를 간지럽히고, 부드럽게 토닥이며 주의집중을 시키기 위해 삑소리가 나는 돼지인형을 활용하시고, 뒤집는 아기를 위해 여러 자세를 취하시는 등 아버님만의 놀이학습과정을 위한 대처전략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떠한 교육이나 정보도 없이 진행된 첫 촬영이었는데 너무나 잘하고 계신 아버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아기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옹알이 할 때 아버님께서 즉각적으로 아기의 감정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아기의 옹알이와 아버님의 얘기가 대화처럼 오고 가는 과정입니다. 놀이학습과정을 끝낼 때는 아기에게 알려주세요. “아가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혹은) 내일 또 하자. (혹은) 다음에 또 하자.”와 같이 활동의 종료를 아기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록 F.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출석률

참여자 ID	1회차 강의	2회차 강의	3회차 강의	4회차 강의	5회차 강의	NCAST 피드백	10회기 참석률 (%)
1	○	○	○	△	○	○	90
2	○	○	○	○	○	○	100
3	○	○	○	△	○	○	90
4	○	○	○	○	○	○	100
5	○	○	○	○	x	○	80
*6	△	x	x	x	○	○	50
7	○	○	○	○	○	○	100
8	○	○	○	△	○	○	95
9	○	○	○	○	○	○	100
10	○	○	○	○	○	○	100
11	○	○	○	○	○	○	100
12	○	○	○	x	x	○	60
13	○	○	○	○	○	○	100
14	○	○	○	○	○	○	100
15	○	○	○	○	○	○	100
16	○	○	○	○	○	○	100

부록 G.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_ 가정방문 부아 상호작용 활동 피드백 제공



부록 H. 영아건강발달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_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프로그램에서 에서 가장 좋았던 점	본 수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하에게 변화가 있다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아이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 강의 이외에 텍스트로 정리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표정과 몸짓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프로그램 진행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설명이나 촬영 후 레포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 영상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아기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더	없습니다
아이에대한 이해와 그시기때의 아이의 상태,행동들을 알수있어 좋았습니다	전문용어들이 많아 보기까다로움, 마이크음질	전보단 아이에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변하였고 내아기의상태를면밀히관찰할수있었던것같다	프로그램에 있어 아주좋은것같습니다 딱히개선은..없는것 같습니다
아내의 고충 공감 이해 남편의적극적인도움	소리가 작아서 잘 안들렸어요 주변소리에집중이잘안되었어요	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좋고싫음칭찬 등 행동을보게되고 조금씩행동을다르게하여 아이에맞게바꿔보고있습니다	주변음차단과 집중할수있는 자료 빠른발표형이면다음 분들은더좋은자료가 될거같습니다
아이 교육 방법	강의 음량	아빠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아이의 반응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동영상 음질이 안좋아서 전달력이 다소 부족했음	아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퀄리티가 좀더 올라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영상강의가 볼 자료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풍성한 자료가 있기를바랍니다.
소통, 눈맞춤을 통해 아이와 더 가까워졌고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알게되었다.	어떤 강의는 음질이 좋지않아 좀 아쉬웠다	아이와 좀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했고 평소에 말이 안통하니 소통하는게 어려웠는데 안통하지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는게 중요하다는걸 깨닫고 그럴려고 노력중이다	음질만 좋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에서 가장 좋았던 점	본 수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하에게 변화가 있다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이론적인 내용도 좋지만 실습과 피드백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영상이 짜임새있게 편집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비언어적으로 행했던 action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향후에는 말을 못하는 아이더라도 내 감정상태와 대처방법을 모두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대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거나 같은 과정으로 신규 참가자 모집 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왜 이러나 싶을때가 있었는데, 이해하게됨	강의 영상이 끊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던 아기에게는 내가 아주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아이 교육 방법	강의 음량	아빠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없음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설명이나 촬영 후 레포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의 영상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아기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더	없습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아이성장에 따른 교육내용을 알수있어 좋았다.	적은 시간이지만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내기가 어렵구나 생각이 듬	아이에게 멘토받은 내용을 차례로 시도하는것이 좋았다.(아이가 늘진 않았지만...ㅠ)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딘	질문할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조금더 집중해서 아이에 성장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카페확인후 생각이 날것같다ㅜㅜ
소통, 눈맞춤을 통해 아이와 더 가까워졌고 아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알게되었다.	어떤 강의는 음질이 좋지않아 좀 아쉬웠다	아이와 좀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했고 평소에 말이 안통하니 소통하는게 어려웠는데 안통하지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는게 중요하다는걸 깨닫고 그럴려고 노력중이다	음질만 좋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부록 I. IRB 심의결과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연구책임자	이름: 박세은	소속: 간호대학 간호학과	직위: 박사과정
지원기관	해당없음		

과제정보

승인번호	IRB No. 2007/003-042		
연구과제명	영아 아버지를 위한 영아 건강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종류	학위 논문 연구 , 설문조사 , 행동실험연구		
심의종류	재심의		
심의일자	2020-07-27		
심의대상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서면동의 면제사유서 , 재심의 답변서 , 모집문건 , 설문지(면담질문지)		
심의결과	승인		
승인일자	2020-07-27	승인유효기간	2021-07-26
정기보고주기	12개월		
심의의견	1. 심의결과 제출하신 연구계획에 대해 승인합니다. 2. 연구자께서는 승인된 문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연구진행 과정에서 계획상에 변경사항(연구자 변경, 연구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 유효기간 내 연구가 끝났을 경우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2021-06-26까지 지속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계획서 검토의견		
	동의서 검토의견		
	기타 검토의견		

2020년 07월 27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반드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참여자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증 및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4.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진행중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응급상황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연구참여자의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6. 임상시험 또는 연구참여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8. 연구참여자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연구 참여 여부를 숙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bstract

Effects of On · off-line Education Program aimed at Promoting Father-infant Interaction

Park, Sae-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ang, Kyung-Sook PhD., 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n · off-line education program for fathers of infants to enhance parental interaction and to verify the program's effectiveness. The program was composed of five sessions. The sessions were comprised of home visit, oral and written feedback, online lectures, home visit, and final oral and written feedback and all of them were done in the mentioned order.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interaction domain where the care provider, environment, and children interacted within Kathryn Barnard(1978)'s Child Health Family

Interaction theory. Especially,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is research attempted to confrim th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social support for fathers of infants by figuring out whether the program increased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father-infant interactions and attachment as outcome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developed program,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s where each group was composed of 18 people. They were selected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they were fathers with infant children (2-6 months of age) residing in three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who participated in the universal visit as part of the Seoul Healthy First Step Project. The number of the final study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follow-up investigation composed of 15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7 people in the control group. To the experimental group the on・off-line father-infant interaction enhancement education program was applied.

The collected data were hypothes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after confirmation of preliminary homogineity, and the results of the satisfaction surveys collected from the experimental group were organi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father-infant interaction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especially in the caregiver aspect (p=.075). However, the changes between the groups and tim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it came to infant development knowledge and infant-father attachment.

Through this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father-infant interaction promoting education that targeted fathers of infants enhances the father's sensitivity to infant signals and fosters the abilit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infants' cognitive development. This study proposed possible strategies improving father-infant interactions by making sure that they have accurate knowledge regarding infant development so that the quality of care of the caregivers at home can be improved. This program is meaningful in that it did not only t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y using both on and off-line education, but also it tried to encourage working fathers to participate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ir schedules through individual counseling and feedback gathering by using the means of online community and phone counseling. This program can be applied to various caregivers and infants in diverse situations including mothers, grandparents, babysitters, and children with disease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program by expanding the fathers' direct participations and by encouraging knowledge-sharing among fathers who are in similar circumstances although follow-up studies are needed in this regard.

Key words: Father-infant, Interaction, Attachment,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5-20530

감사의 글

작게 타오르던 학문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키워올 수 있도록 부족한 제자를 이끌어주신 방경숙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세심한 부분까지 늘 살펴주신 채선미 심사위원장님,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으로 지도해주신 김혜원 심사부위원장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부터 논문지도까지 믿음으로 지켜봐주신 조성현 교수님, 늘 곁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강현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에게는 모범이 되어주는 아버지이자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지원군인 전재일씨, 덕분에 논문을 시작하고 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커주는 아들 태현이에게도 특별한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해주신 아버지들의 말과 눈빛, 몸짓과 행동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뜨겁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열정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여 피드백 주시고, 하나라도 더 아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모습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 배려해주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강영호 지원단장님, 연구진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이른 새벽, 늦은 밤. 자식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박 세 은 드림